

다고 생각합니다.

(하략)

〈출전 : 盧泳奐 參議 『第18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7년〉

8) 참의 안종철(安鐘哲)

1. 국체관념을 명징할 것.

지금의 비상시국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특히 강조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많지만, 일반 민중에게 국체관념을 함양시키고 국민정신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특히 조선 민중에게 이것이 아직 충분히 철저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일반 민중에게 철저히 하는 방책으로서는 우선 유림을 선도하고 부흥시켜 보수적 사상을 타파하고 이로써 국체관념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그 실행요강은 신사참배, 국기게양의 장려, 강연회의 개최 등입니다.

1) 신사참배

지방의 유림은 아직도 경시할 수 없는 잠재력을 가지고 그들의 사상의 심연, 생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문묘에는 매월 1일, 15일에 분향례(焚香禮)를 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요한 유림들을 다수 모아서 우선 교육칙어(敎育勅語) 봉독, 신사 소재지에서는 신사참배, 신사가 없는 지방에서는 황거요배(皇居遙拜), 국체에 관한 강연 등을 하여 그들에게 국체관념 및 애국정신을 철저히 함양시킬 것.

2) 국기게양 장려

지난해 정무총감으로부터의 통첩이 있었고 농촌진흥운동과 함께 예의 주도하게 이것을 장려하여 왔지만, 아직도 철저하지 못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국기게양 장려회와 같은 것을 각 부락마다 설치하여 군(郡)·면(面)의 감독 아래 국기를 공동 구입하고 축제일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철저히 알게 하여 의의가 있는 게양 방법을 지도 및 장려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이를 엄중히 단속하여 일절 게양하도록 할 것.

3) 강연회 개최

각 도(道)에 조예 있는 사람을 도 혹은 군에 촉탁하고, 때로는 명사(名士)를 초청하는 등 임기응변으로 자주 강연회를 개최하여 일반 민중이 듣게 하고 보급을 철저히 도모할 것.

2. 부녀자의 교양을 도모할 것.

자녀의 양육, 생활개선, 가정평화, 가정의 정리 등 부녀자의 힘에 의해야만 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조선의 부녀자 중에는 보통교육을 받은 자가 적고 때문에 위와 같은 각종 사항에 결함이 많기 때문에 부녀자의 교양은 필요 적절한 사항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강조하여 철저히 하는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각 도에 여자 중견인물 양성기관을 일률적으로 설립시킬 것.
- 2) 군·면에 여자 관리를 둘 것.
- 3) 각 부락에 주부회, 처녀회 등을 양성하게 설립할 것.

농촌진흥운동 발흥 이래 각 지방에 부인회를 조직하고 계속 옥외노동을 종용하고 혹은 야학회를 개최하여 언문을 습득시키고 있지만 부녀자의 상식 함양, 가사 취급 등의 지도 훈련에는 아직 고려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시설을 하여 적당한 교양에 노력하면 적지 않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략)

〈출전 : 安鐘哲 參議 『第18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7년〉

9) 참의 이교식(李教植)

본 문제에 대해서는 계몽운동의 철저를 도모하는 것이 선결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의 지도는 물심양면으로 병행, 진전하여 성과를 높여야 합니다. 그 수단으로는 우선 농촌 주민의 지식을 향상시켜 현재의 상황을 주시시키는 것이 긴급한 문제입니다. 농촌 주민의 현재의 지식을 향상시키지 않고서는 여러 종류의 사회교화 시설 경영도 소화하고 구현하는 일은 어렵고, 그 성적 또한 예기한 바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농촌진흥운동 개시 이래 강습회·강연회·야학회·부인계몽강습 등 각종의 시설에 의해 점진적으로 계몽운동의 효과가 나타나고 생활개선, 그 밖의 각 분야에 걸쳐서 활기찬

기운이 충만한 것은 환희에 마지않는 바이지만, 이 기회에 한층 더 이 운동에 철저를 기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문맹 근절의 방안도 확립하고 사회교화 시설을 일반에게 철저하게 하여 그 효과를 거두려면 우선 그 목표 및 실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표

- 1) 문맹을 근절할 것.
- 2) 미취학 아동에게는 취학의 길을 열 것.
- 3) 농촌 청년의 지도단체를 강화할 것.
- 4) 심전 개발에 힘을 쓸 것.

2. 실행 방법

1) 보통학교의 확충

올봄 각 보통학교의 입학 상황을 보면, 입학지원자에 대한 입학 비율은 4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전체 취학연령 아동의 취학 상황은 공사립학교, 서당 등 각 기관을 통해 불과 3할 정도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재정이 허락하는 한 적극적으로 보통학교의 확충을 도모하여 가능한 한 의무교육의 실시에 힘쓰고 미취학 아동이 없도록 교육의 보급을 도모하며 이로써 사회문화 시설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초 공작을 하는 것이 가장 급무라고 생각합니다.

2) 전 항이 완성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아래의 보충방법에 의한 시설을 할 것.

(1) 사립학교의 개선 조장

현재 사립학교의 내용 개선,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보통학교와 동등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감독을 충분히 하고 적극적으로 조장 방법을 강구할 것.

(2) 서당의 개선 증설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 공사립학교만으로는 도저히 취학하지 않는 아동 전부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서당 이외의 다른 적당한 방도가 없고, 따라서 현재의 상태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서당이 그 완화책으로서 중요한 교육기관의 역할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당의 증설, 개선에 힘써 그 시설을 이용하여 농촌에 취학하지 않는 아동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강습회, 야학회 등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일반인이 집회하기 쉬운 장소에는 라디오를 설치하여 수양 방면 및 오락 방면에서의 성인 계몽을 철저히 꾀하여 농촌문맹을 근절할 것.

3) 청년훈련소의 확충

청년은 현재 농촌진흥운동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그 의기의 높고 낮음이 장래의 농촌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므로 이것을 선도, 계발하여 참된 농촌 청년단체 하는 것은 현재 긴급한 사항입니다. 종래 청년통제기관으로서 청년훈련소는 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현상에 비추어 볼 때 농촌 청년단체의 기초를 견고히 하고 그 지도의 철저를 도모하고 활동을 촉진시켜 심신 모두 강건한 농촌 청년을 양성하여 농촌 흥륭(興隆)의 초석이 되어 청년의 용맹하고 물러서지 않는 의기를 약동시키도록 지도, 계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심전개발

국민생활에 경신숭조(敬神崇祖)의 정신을 함양하고 국체관념을 확인시키고 나아가 국민으로 하여금 종교적 신앙심에 기초하여 농촌생활의 안정을 향상하고 숭조의 마음을 두텁게 하여 일가(一家)의 융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세에 비추어볼 때 불교 또는 기독교 등에 의한 정신적 방면에 힘쓰도록 포교 전도하고 현재 종교적 정조가 부족한 농촌을 선도하여 인류로서 또는 국민으로서의 본의를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에게 경신의 마음을 강조하고 민풍(民風)을 진작시켜 선량한 풍속으로 이끌어 이 방면의 시설과 함께 도의적으로 사회적으로 국민도덕 진흥에 기여하여 농촌진흥운동에 한층 생기를 약동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국민생활상의 근본 문제일 것입니다. 그 실행방법을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사참배를 이행하게 할 것.
- (2) 신사가 없는 지방에서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구현하여 실행하게 할 것.
- (3) 불교 또는 기독교의 포교, 전도에 힘쓸 것.
- (4) 조상의 제사(묘제(墓祭)를 포함)를 엄숙하게 이행하게 하여 조상에 대한 마음을 돈독히 할 것.

〈출전 : 李敎植 參議 『第18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7년〉

10) 참의 한규복(韓圭復)

사회교화의 강조를 요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이를 크게 나누면 첫째는 사상의 악화, 둘째는 생활의 불안입니다. 그러나 사상 악화의 원인은 어느 한 부분에서는 특종인 것도 있지만 생활난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무릇 생활난의 원인은 첫째로 인구 증가 때문에 의식주에 부족을 느끼고 수급의 관계상 자연적으로 고가(高價)가 되는 것, 둘째로는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노동력이 기계화되는 것, 이상이 대서특필해야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조선에서는 근검 사상이 박약하고 의뢰심 때문에 민심이 상당히 나태한 것은 숨길 수 없는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근검을 근본으로 하는 도덕을 강조하여 이상 서술한 원인에 대해서 구제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의 순서로서 우선 국가에 대한 감격심(感激心)을 가지게 함과 동시에 명륜(明倫) 사상을 고취하여 동양 고유의 도덕을 기초로 하는 정신생활을 교정할 것을 요합니다.

1. 국체명징에 대대적인 시설을 요할 것.

현재의 비상시국에 국민의 사상을 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무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종류의 시설에 대해서 항상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만 하는 것으로, 특히 민중에 대해서는 국체관념을 충분히 침투시키는 일이 시기상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믿습니다. 조선에서는 병합 이래 27년간 이 시설에 관해서는 볼 만한 것이 없고, 중등정도 이상의 학교출신자 이외에는 국체에 대해 이해하는 자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보통지식의 보급에 따라 이해하는 자가 점차 증가하지만, 이른바 유식계급에게 먼저 이해시키고 순차적으로 하층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철저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공리(官公吏) 또는 지도자 계급에 대해서 국체에 관한 지식을 충분하게 알게 하고 대일본제국의 국체가 전 세계에 유례없는 감사한 국체임을 직감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의 실시방법으로는 국체에 관한 요강을 분명하게 기록한 책자를 배부하는 동시에 때때로 강연회를 개최할 것.

2) 각 단체를 이용하여 이것의 철저를 꾀하는 것은 비교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공장, 기타 다수가 집합하는 장소에서 강연하고 지방에 있는 진흥회(振興會), 부인회 등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다.

2. 명륜 사업에 대한 통제기관을 조직할 것.

생존경쟁이 점점 극심해짐에 따라 윤리도덕이 나날이 쇠퇴하는 상태인 것은 현재의 실정입니다. 요즈음 심전 개발 사업으로 정신생활에 대해 다소의 깨우침을 주고 있지만, 이것은 마치 대하(大河)의 홍수를 한 삼태기의 흙으로 막는 것과 같은 것으로 도저히 만족하는 효과를 얻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륜 사업에 대해 상설기관을 설립하여 때때로 연구함과 동시에 동양 고유의 도덕을 기초로 하여 모든 교화사업의 실시, 철저를 도모하는 것은 시세에 비추어 볼 때 가장 긴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원래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상고 이래 동양 고유의 도덕으로서 역사상에도 있고 성현의 가르침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르치지 않고 충신효자인 것을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며 국가 또는 사회에서는 힘이 닿는 한 인간이 인간다운 길을 평범하고도 감동하기 쉽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으로는 경성에 명륜회 또는 명덕회(明德會)의 본부를 두고 각 도·부(府)·군(郡)에 지부를 설립하여 아래의 사업을 실시할 것.

- 1) 잡지를 발행하여 윤리도덕을 비롯하여 각 교화사항을 고취할 것.
- 2) 강연회를 개최하여 명륜 및 근로의 진리를 알게 할 것.
- 3) 활동사진 또는 연극의 각본을 만들어 충효 및 덕행에 관한 감동을 일으키게 할 것.
- 4) 덕행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명륜회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지사가 표창할 것. 지사의 표창을 받고 더욱이 사회에 의표(儀表)가 될 만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총독에게 신청하여 총독이 표창할 것.

3. 산업을 합리화해서 생활의 윤택을 도모할 것.

산업을 장려에 대해서는 당국의 노력에 의해 현저한 발달을 보기에 이르렀지만, 농업 및 기타 산업은 여전히 불철저한 경향이 많고 생산자의 이익보다도 중간상인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 적지 않은 현상이므로 향후 가능한 한 생산자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세민의 생활 안정을 꾀하도록 항상 궁리하고 장려하기 바랍니다.

(하략)

〈출전 : 韓圭復 參議 『第18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7년〉

11) 참의 조성근(趙性根)

시정 이래 우리 조선에서는 사회교화 시설로서 다소 볼 만한 것이 있지만 아직 분발하지 못하고 있는데, 수년간 실시한 농산어촌진흥운동, 자력갱생운동과 병행하여 국제명징, 국기 게양, 심전 개발, 농촌 부인 훈련, 의례 준칙의 재정, 민력(民曆)의 개정 등 각종 사회시설 및 사회교화 시설의 강조, 실시를 볼 수 있게 된 것은 실로 기쁜 현상입니다. 그러나 조선통치의 근본정신에 거슬러 올라가면, 특히 현재와 같은 비상시국에 당면하여 가장 필요하고도 긴급하다고 통감하는 것은 조선의 일반 민중에게 확고한 국민 의식을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조선 통치의 근본정신은 감사하게도 명치천황의 일한병합에서 하사받은 조서에 의하여 저절로 명확하여 새삼 말할 필요도 없지만, 역대의 총독은 성지(聖旨)를 잘 받들어 그 정치가 적절하였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이상에 근접하고 있는 것은 방가(邦家)를 위해 진실로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 빨리 성지에 따르고 받들어 하루 빨리 조선 통치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조선 민중이 가능한 한 빨리 대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 다 같이 폐하의 총량한 적자임을 깊이 인식시키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비상시에 당면하여 내외적으로 다사다난한 때에 조선 민중으로 하여금 충분히 우리 금구무결(金甌無缺)한 국체를 이해시키고 그들 모두에게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라는 강한 신념과 굳은 긍지를 가지게 할 필요가 절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로 다른 백반(百般)의 행정 및 각종 시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조선 통치는 이로써 시종일관해야 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상에서 논한 국민의식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 방책이 강구되어야 하나하면, 먼저 언론기관, 라디오, 순회강연 등 모든 기관 및 기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일반 민중을 지도, 교육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욱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논하는 항목에 근거하여 시설 및 방책에 대하여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국기 게양을 장려할 것

국기관념을 한층 더 강조하고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 국기 게양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게 하고 국기 게양탑의 증설, 보급 등 민중에게 마음으로부터 국기에 대해 친근감을 가지게 하고 국기의 진의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할 것.

2. 신사의 보급을 꾀할 것

신사참배의 적극적 장려 및 신사를 증설, 보급할 것. 즉, 신사를 일본인만의 신사로 할 것이 아니라 일본 국민의 신사임을 알게 하여 일반 민중에게 친근함을 부여하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할 것.

3. 4대절(四大節)의 의의를 철저히 펴할 것

4대절, 특히 천장절(天長節)과 기원절(紀元節)의 여러 행사를 도시와 시골의 구별 없이 되도록 성대하게 하여 일반 민중에게 충분히 익히게 할 것. 또한 그 방책으로는 농민오락 등을 장려하여 민중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4. 병역의무에 관한 것

징병제도의 즉시 실시는 제가 수년 이래 주장해 왔는데, 즉시 실시하여 만약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시기상조라고 한다면 백보를 양보하여 적어도 지원병 제도라도 조속하게 실현할 것을 요망합니다. 현재의 상태로는 조선의 민중에게 단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충의를 다하는 길이 없는 것으로 비취질 우려가 있고, 이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비상시국에는 그 필요성을 더욱 통감합니다. 지원병을 모집하고 한편으로는 고등보통학교에서 사관학교의 입학을 장려하는 방책을 취하여 조선의 자제들이 다수 제국 군인이 되는 영광을 입게 하는 것은 일반 민중이 비상시국을 피안시하는 태도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제국 신민으로의 신념과 굳은 긍지를 가지게 하는 데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5. 의무교육의 실시에 관한 것

의무교육의 즉시 실시도 수년 이래 주장해온 것 중 하나인데, 일반 민중의 교육 정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국민의식을 이해시키고 철저히 하는 데에 있어 꼭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의무교육의 연한(年限) 연기 문제조차 거론되고 있는 것에 비해, 같은 제국 신민이라고 하면서도 무학문맹의 무리들이 아직 많고 시정이 이미 30년이 지났지만 아직 간단한 일본어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는 조선의 현재 상태를 생각할 때 의무교육 시기상조를 운운하는 시기는 이미 지난 감이 있습니다.

6. 참정권에 관한 것

위의 제2항에서 논한 것과 같은 이유로 하루라도 빨리 참정권을 부여할 것을 희망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제국 신민이 향유할 수 있는 모든 의무와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을 때가 하루라도 빨라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약 참정권의 일반적 부여가 시기상조라면 뭔가 다른 형식을 취하여 부분적으로라도 참정 가능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바랍니다. 다수의 조선인 의원으로 하여금 정치의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루라도 빨라진다면 그만큼 일반 민중의 국민의식 심화도 빨라질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7. 내선 차별의 철폐에 관한 것

하루라도 빨리 내선 차별의 장벽을 제거할 것을 바랍니다. 일본인 관리의 가봉(加奉) 등 지금 당장 철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사실상 곤란하지만, 사실 이러한 점들이 내선 차별의 관념을 제거하는 데에 현저하게 방해 요소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관리가 마음으로부터 내선 차별의 모범을 민중에게 보여 자칫하면 한 쪽으로 기울기 쉬운 민중을 항상 선도하려고 한다면 내선일체, 제국의 국운 진전에 공헌하는 바가 많고 비상시의 오늘날에 있어 가장 좋은 방책이라 믿습니다.

(하략)

〈출전 : 趙性根 參議 『第18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7년〉

12) 참의 최지환(崔志煥)

1. 국어¹¹⁾의 보급을 꾀할 것

생각하건대, 국민으로서 자국의 국어를 모르는 자는 자칫하면 국가적 관념이 박약해지기 쉬운 우려가 없지 않고, 따라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완전히 다할 수 없는 반면, 그 권리까지도 충분히 주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충실한 국민이 되고자 하는 의사가 있지만 표면적으로 이를 완전히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

11) 일본어를 뜻함.

기 때문에 이면에서 상당히 고려(苦慮)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선량한 국민으로 지도할 방책으로는 첫째로 일본어의 보급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급을 요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조선에서는 신정(新政) 이래 당국이 일본어 보급을 학교 교육, 그 외에 의하여 지도 장려한 결과, 도읍에서는 상당히 보급되었지만 농촌에서는 아직 일본어를 모르는 자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최근에 당국에서 조선인 관공리(官公吏)에 대해서는 일본어 상용에 관한 지도, 장려가 있지만 농촌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 계획이 보이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농촌에 대해서도 야학회, 기타 적당한 방법을 가지고 모든 농민에 대하여 하루라도 빨리 일본어의 보급을 지도함과 동시에 가정에서 일본어를 상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특수한 은전(恩典)을 주어 일반에게 이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대만총독부에서는 전 도민(島民)의 황민화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일본어의 보급을 지도함과 동시에 일본어 가정을 인정하여 우선적으로 특전을 수여하는 방침하에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는데, 본 시설은 현재의 비상시국에 당면하여 가장 적절한 시설이라고 여겨지므로 조속히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2. 자작농 창정(創定)계획을 확충할 것

몇 해 전 농산어촌 진흥운동 개시 이래 마야흐로 그 기운이 농촌에 퍼져 적재황폐(積載荒廢)에 처해있던 산야에도 실로 갱생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고, 오랜 세월 안일함을 탐하던 농민도 조금씩 분발하는 열도(熱度)가 높아짐에 따라 반도는 실로 춘양내복(春陽來復)의 느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민이 함께 진실로 기뻐할 현상이지만, 그 실적은 계획 제1기를 경과한 오늘의 경우, 관민 총동원의 분발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정도의 효과밖에 내지 못하고 아직 구호에 지나지 않는 느낌이 없지 않지만, 오직 한 명의 자작농 창정(創定) 실적만은 다른 여러 시설에 비하여 단기간에 단연 위대한 효과를 거두어 농민이 구가해 마지않는 것은 본 시설이 얼마나 조선의 현실에 입각하여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인생은 의식이 족하면 예의를 안다고 하는 천고불후(千古不朽)의 격언과 같이, 아무리 정신 진흥 및 심전 개발을 외쳐도 의식이 궁한 자가 어찌 그 운동에 마음을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특히 몽매한 소작인에 대해서 눈앞에 실리가 따르지 않는 지도를 행하면 공연히 번민을 느끼게 할 뿐이고 진실로 자각을 촉구하는 것도 이유 없는 허풍과 같습니다. 향산(恒産)이 있는 자에게 향심(恒心)이 있는 것은 인지상정이므로, 그들에게 재산을 다스리게 하면 정신 작흥 및 심전 개발

과 같은 지도가 없더라도 스스로 질실(質實) 강건해지고 충실한 국민이 될 것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이기심을 선도하고 효과 백배적인 시설로써 무엇보다도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사료되므로, 자작농 창정의 계획을 한층 더 확충하여 소작인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그 자각심을 고취하고 나아가서는 농촌에 충동을 환기시키는 것이 조선 농촌의 현실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하략)

〈출전 : 崔志煥 參議 『第18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7년〉

13) 참의 유태설(劉泰尙)

1. 강조, 실시를 요하는 사항

사회교화 시설 중 조선의 상황에 비추어 특히 강조, 실시를 요하는 사항은 심전 개발 시설 바로 이것입니다. 국민정신을 도야하고 심전을 배양하여 확고한 인생관을 가지게 하고 성실 자립의 정신을 함양하는 것은 정치를 하는 데에 매우 긴요한 일로서, 본부에서도 이미 그 필요를 인식하고 통첩, 기타 방법을 통해 자주 그 요항과 실행방법을 알려왔으나, 이것은 원래 일조일석에 그 성과를 얻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지육(智育)을 기초로 하는 물질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자칫하면 덕육(德育)을 기초로 하는 정신문화에 타격을 미치는 일이 생기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원래 덕이 지를 지배한다는 것은 공자, 석가, 예수의 가르침이 인류사회에 미친 공훈의 위대함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현재 반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교화, 그 외 정치상 어떠한 결함을 주된 원인으로 하고 있는지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원인을 탐구하여 이를 배제하지 않으면, 심전 개발은 단순히 구호만으로 그칠 것입니다. 심전 황폐의 원인(遠因), 근인(近因)을 명확히 관찰하지 않고 개척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마치 병의 원인을 진단하지 않고 백약을 투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교화, 그 외 시정(是正)이 필요하다고 믿는 바를 이하 2항에서 서술하겠습니다.

(1) 문교의 쇄신

현재 각종 학교의 교화제도는 지육 편중의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덕육을 주로

함으로써 사회의 중견이 될 제2국민에게 재교 당시부터 확고 불변한 정신을 배양할 것.

(2) 계몽운동의 강화 철저

국체명징, 신앙심의 함양, 성실자립정신의 양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 강연을 청취하는 민중, 간행물의 배부를 받는 민중, 방송을 듣는 청중에게 청취력이 없고 독파력이 없으며 이해력이 없을 때는 마이동풍이며 강조는 비용과 노동의 낭비로 끝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반도의 현 상태를 살펴볼 때 제2차 교화확충계획의 완성기인 1946년도에조차 학령 아동수의 겨우 5할만이 취학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제2차 교화계획 이외에 문맹퇴치의 방법이 없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사립학교, 사설 강습회, 서당 등이 다수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보조하고 적당히 장려하고 개선을 더함으로써 계몽사업의 완비를 기함과 동시에, 정신계의 구제를 피하는 것이 가장 필요 적절한 대책이라 믿습니다.

(3) 심전개발기관의 확충

현재의 행정기구(行政機構)는 이미 물적으로 편중된 느낌이 없지 않고, 물적 개발기구로는 식산국과 농림국이 있으며 내무·체신 양 국의 사무도 대부분이 물적 방면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적 방면의 기구는 겨우 학무국의 사회교육과 한 과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물심 병행주의를 과연 완성할 수 있을지 크게 의문스럽습니다. 심적 방면은 물적 방면의 사무에 비하여 복잡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물적 방면보다도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방면의 사무가 더 다기다난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는 산야도 있고 해양도 있으며 삼림도 있고 무한한 보고도 있으며, 그 범위는 오히려 물적 방면보다 광대무변하며 변화도 끊임이 없습니다. 반도의 관리 전부가 그 시설의 실시(實施)에 임하는 것은 실로 막연한 것으로, 그 구호는 신탄 없는 공포탄의 느낌을 지울 수 없으므로, 반드시 책임 있는 강력한 기관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그 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구 쇄신 확대의 필요를 느끼는 바입니다. 따라서,

① 본부의 사회교육과를 사회국으로 승격해 시설의 실시(實施)에 권위를 부여하고, 여기에 1과를 설치하여 우리 국체 국민정신의 원리를 천명하여 국민 문화를 고취시키고 외래의 기타 잡사상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이론체계를 건설하고 이를 민중에 철저히 주지시킬 것.

② 각 도에 일제히 사회과를 설치하고, 각 부(府)·군(郡)·도(島)·읍·면에 각각 적당

한 계(係)를 설치하여 인재에게 맡겨 본 시설 실행을 전담케 할 것.

③ 각 구장(區長)에게는 심전개발위원으로 사령을 내려 위원을 겸직하게 하고, 구장은 약간의 유급제로 할 것.

총독정치의 요향은 본부로부터 도에, 도로부터 부·군·도에, 부·군·도로부터 읍·면에, 읍·면으로부터 각 구장에 계승, 전달하여 직접 인민에게 개별적으로 전하는 것은 구장입니다. 본 부 및 도·부·군·도의 관리가 직접 인민을 접하는 기회는 극히 드뭅니다. 때문에 구장에 적절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모처럼의 선정도 끝내 민중을 철저히 하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 상황을 보면 다수 중에는 우량한 자가 없는 것도 아니나, 무급제이기 때문에 정말 유력한 중견인물은 오히려 그 취임을 기피하고 심하게는 구장을 사환으로 보는 예조차 결코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구장의 인선을 적절히 할 수 있으면 다른 시정은 물론 정신 작용 방면의 선전도 크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4) 각 부락의 심전개발위원

중견의 재능 있는 인물을 선발하여 위원으로 하고, 이에 구장과 함께 필요한 인쇄물을 배부함으로써 종교 전도와 같이 집회 또는 호별 방문, 그 외의 기회에 철저히 취지대로 활동시켜 성적에 따라서 상여장려금을 지급할 것.

이상의 내용 외 1936년 1월 정무총감 각하의 심전개발시설에 관한 건의 통첩에 명시된 요향의 강조와 철저를 꾀하고 그 성과가 간절히 기다려집니다. 본 시설의 실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의하기 바랍니다. 직접 인민을 담당하는 관리가 친절, 정중함을 주지하여 덕으로 이끌고 민중의 신뢰심을 환기하면 그 지도를 행하기 쉬운 것은 말 할 필요도 없으나 민중을 접하는 관원에게 이따금 신망을 실추하는 실책이 있다고 함은 실로 유감입니다. 한 관리의 비행은 만관(萬官)의 선행을 뒤집습니다. 만일 한 관리가 사적 인연을 공무 집행에 이용하여 공사를 혼동하거나 또는 경찰관리가 함부로 잘못된 구속, 고문을 행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악사(惡事)가 천리를 달리는 것은 세상의 예로서 곧바로 관원의 선도에 대해서도 불안한 마음을 품고 그 지도로부터 과연 보물이 나올지 또는 귀신이 나올지 의심하여 외종내반(外從內反)하는 예가 없다고 보증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관리의 기강숙정은 본 시설상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무직, 실직자가 자칫하면 관의 시설을 비방하는 예가 많은 것도 비판력이 없는 민중은 그러한 역선전에 쉽게 편승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들 무직의 청장년을 선도하여 가급적 취직의

길을 열어준다면 역시 본 시설의 실시 효과를 내는 데 도움이 클 것이라 믿습니다.
(하략)

〈출전 : 劉泰高 參議 『第18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7년〉

14) 참의 박희옥(朴禧沃)

교화시설 중 가장 강조를 요하는 것은 농촌진흥과 심전개발일 것입니다. 본 운동은 물질, 심적으로 피폐하고 황폐해진 조선 민중을 완전히 구제하여서 안도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게 하는 최선의 시설일 뿐 아니라, 오늘날의 시국에 비추어 한층 더 그 필요를 통감하게 됩니다. 여기에 철저한 대책에 대해 제 의견을 피력하자면,

1. 농촌진흥운동

현재의 방법으로 해도 좋겠지만 통계연표에 의해 생각할 때, 조선의 순수소작농 156만 호(총 호수의 약 4할)의 평균 농작면적은 논 5반(反) 9무보(畝步), 밭 7반 4무보로, 여기서 발생하는 그들의 수입은 겨우 현미 3석(石), 보리 7석 내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아무리 경제개생을 피하려고 하여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주 이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경작 면적의 완화를 도모함이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2. 심전개발운동

심전개발운동은 일본의 역사 및 시국 현상에 비추어 신도(神道)를 선포함이 적당하겠으며 이 선포를 기함에는 아래의 사항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신사를 증설할 것

과학의 진보와 함께 미신타파운동이 자칫하면 무신론으로 기울기 쉽고, 나아가서는 조상 숭배의 마음조차 점차 희박해져 모처럼의 고유 신앙심마저 모두 잃어버리게 할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실로 신앙할 수 있는 기관을 되도록 각자로부터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각종의 신앙심이 여기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신사에 조선인 신직(神職)을 양성, 배치할 것

일본인 신직으로서는 언어와 인정, 풍속을 달리하는 조선인 숭경자를 다루기 불편할 것이며 또한 신도 선포를 철저히 하는 데에도 부족한 우려가 있으므로 조선인 신직을 양성할 것.

3) 조선인을 위한 기원에는 조선어로 번역한 축사를 사용할 것

축사는 기원자로 하여금 진실로 경건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므로 글의 내용이 통하지 않으면 그 철저함이 결여되어 진실로 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환기하기 어렵습니다.

4) 자선적 사업은 신사를 통하여 행할 것

자선, 구휼 사업을 되도록 신사에서 하도록 하면 신사와 민중의 접근을 피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믿습니다.

5) 각종 표창식을 신전(神前)에서 행할 것

관공서의 각종 표창식을 신전에서 신식(神式)으로 행하면 경신사상을 함양하는 데에 효과가 클 뿐 아니라 모든 민간 의식의 신전 거행을 유도하게 되어 생활 개선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6) 신도에 관한 서적을 간행할 것

조선인 하층민은 물론 중류인이라고 하여도 신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가 극히 많기 때문에, 신도에 관한 통속적 서적 또는 소설과 같은 것을 다수 간행하여 신도를 주지시키고 철저함을 꾀할 것.

(하략)

〈출전 : 朴禮天 參議 『第18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7년〉

15) 참의 이승우(李升雨)

1. 국체명징의 관념을 강조, 실시할 것

사회교화시설 중 국체명징의 관념을 강조 실시할 필요가 있음은 일본에서도 동일한 문제로 여기고 있으며, 특히 조선에 있어서만 필요 불가결한 문제는 아니라 보이지만, 조선의 실상에 생각이 미치게 되면, 내지보다도 특히 조선에서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낍니다. 본디 인류가 세상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목표를 정하고 그에 상응한 욕망이 있고서 비로소 진보, 발달하는 것으로, 욕망이 없는 민족은 발달하지 않는다는 격언도 누누이 들어왔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조선인은 어떠한 목표, 즉 욕망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하건대, 조선인 중 극소수의 계급을 제외한 대중의 대부분은 진보적 욕망도 없이, 현 상황에 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원인을 탐구하면, 조선인은 아무리 노력, 분투하여도 일본인이 될 수 없고, 조선인은 여전히 조선인 그대로이고, 대일본 제국은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잘못된 관념을 품고 있는 데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이고 이러한 오해를 일소하여야 비로소 조선인도 분투노력하여 명실공이 일본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인의 최후 목표는 일본이 되는 데 있고, 자신의 언문 행동, 생활양식, 기타 모든 것이 일본인으로서 적당한지 아닌지, 일본의 국체와 대비하여 과연 손색이 없는지 어떤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인은 여기에 이르러 비로소 일본제국이 우리나라라는 관념이 자연적으로 강하게 굳어지게 되고, 충군애국 사상 또한 이에 따라 발로하기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일반 대중의 잘못된 관념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대일본제국의 국체관념을 명징하여 일반 민중에게 이를 철저히 시키는 외에는 길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내지의 국체명징과 그 궤도를 달리하는 부분으로, 조선에서는 국체관념을 명징함으로써 심전 개발, 허례 폐지, 생활 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하여 진정 희망이 있는 사회, 즉 공동생활상 명량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2. 국체명징을 일반 민중에게 철저히 하는 방책

조선 총독부는 국체 명징·심전 개발 또는 색복 장려·허례 폐지·경비 절약·이중생활 개량 등의 문제를 민중에게 호소하여, 물심 양 방면에 걸친 생활의 개선과 향상, 즉 과학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촉진운동을 전개하고, 그 방법으로써 각지에서의 강연회·강습회·영화회의 개최, 인쇄물의 배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어느 정도 효

과를 올렸지만, 그 방법은 형식적이고 추상적으로 흘러 영세민 계급에 대한 교화와 선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강연회 등에 참석하는 자는 이미 자각을 한 중류계급 이상의 자가 많고, 지도의 목표가 되는 인물이 참여하는 일은 거의 적은 상태일 뿐 아니라, 인쇄물과 같은 것도 배부를 받아 이를 정독하려고 하는 열의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희박한 감이 있습니다.

종래에 강구해 온 방법은 이상과 같으므로, 향후 일반 민중에게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도적 지위에 있는 자, 즉 제1선에 있는 관공리·공직자, 도시의 마을 대표·방면(方面)위원, 군부(郡部)의 구장(區長)·교회단체의 임원·종교가와 같은 자에게 우선 국체관념을 철저히 명징시켜, 이상의 사람들이 각 관할 지역 내의 주민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도와 개선을 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 될 것입니다. 즉 호별 방문을 하거나, 혹은 개인적 접촉을 하여 간담을 통해 실제상의 사실을 보충하고, 구체적으로 지도와 장려에 힘을 쓸 때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지도와 장려를 행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지도와 장려에 장애가 될 만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제거하는 데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선의 현 상태를 보건대 현재의 교육은 지적 방면에 전력을 기울이고, 덕육 방면에 대해서는 다소 결함이 있는 듯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재학생 혹은 졸업생의 은사 및 부모에 대한 존경 효행의 관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국체관념을 명징하려고 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곤란하고, 이와 같은 상태를 방임한다면 국체명징운동의 철저에 장애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기 때문에, 덕육 방면에 힘을 쏟아 경박하고 부랑하게 흐를 염려가 있는 일체의 사실을 제거하여 충군에친경장의 교육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사회교화를 민중에게 철저히 하는 한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략)

〈출전 : 李升雨 參議 『第18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7년〉

16) 참의 최린(崔麟)

1. 조선의 현 상황에 비추어 사회교화시설 중 특히 강조, 실시를 요하는 것은 생활의 도의화(道義化)로 이에 대해서는,

- (1) 국체명징·교학 진작을 강화하고 조선 민중에게 일본 제국의 신민으로서의 영예와 자각을 철저히 할 것.
- (2) 신앙생활의 향상을 꾀하고 종교 유사단체라 하더라도 형질(形質) 모두가 종교적 요건을 구비한 선량한 것은 이를 선도하여 민중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게 할 것.
- (3) 경제적 생활과 도덕적 생활의 이원적 관념은 제국 본래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니, 양자의 일치 융합을 꾀하여 이를 일원화할 것.

이상과 같은 생활 도의는 현재의 비상시에 사회교화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뿐 아니라, 실로 조선 통치, 교화 행정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이것을 일반 민중에게 철저히 하는 정책으로는, 반관반민의 통제적이고 강력한 교화단체를 조직하여 도의적 조선을 건설하는 일대 동력을 만들어야 하고, 그 준비를 위해서는 우선 관민 중 권위 있는 자로서 창립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 실행을 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유효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하략)

〈출전 : 崔麟 參議 『第18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7년〉

10. 1938년 5월 20~21일, 제19회 중추원회의 참의 답신서

1) 참의 조희문(趙義聞)

1. 학교로부터 가정을 통한 인식 철저 방책

내선일체 정신의 강화는 내선의 관념을 초월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던지는 허언은 사라져야 합니다. 현재 시국의 중대성과 조선 민중의 사상은 예기치 않게 내선일체가 될 필연의 사태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내선일체 정신의 강화는, 시국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심화하여 조선 민중의 일거수일투족이 민중 자신의 행·불행을 좌우한다는 것을 흠잡을 여지없이 철저히 하며, 조선인과 일본인의 자발적 융합성을 도모하는 선전, 지도 및 고취 등을 계획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일선(日鮮)이라고 부르든 내선이라고 부르든 동일한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내선의 문자조차 사용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황국신민(皇國臣民)으로서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이유, 관념, 우월감 등에 관해, 현실에 이미 존재하는 사실에 비추어 입증할 자료를 모아, 대국민적 금도(襟度), 자격 등이 몹시 긴요한 사태라는 것을 느껴서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현 시국하에서 사상의 통일적 지도를 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각 학교를 중심으로 가정에 통지하여, 구폐 인습적(舊弊因襲的)인 가정 내 사람의 사상을 그 자녀로 하여금 지도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황국신민의 서사(誓詞), 세계지도(시국과 아울러 우리 제국의 국위가 발양하는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 전쟁에 나간 동포 및 후방에서 활약하는 동포의 정황 등을 정리하여, 그것을 가정으로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잘 읽고 설명하게 할 것.

〈출전 : 趙義聞 參議 『第19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8년〉

2) 참의 석명선(石明瑄)

지금 중일전쟁은 제2 단계로 접어들어 반도 2천 3백만 민중의 물심양면에 걸친 후방보국의 열정은 마치 불길이 타오르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내선일체의 정신은 더욱 공고해졌으며 생활면에서도 근검저축, 소비 절약, 기타 제반 행사를 통해 성과를

보여 그 실적은 일일이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개황을 들어보면, 먼저 종이, 목면, 연료 등의 절약을 비롯해 매우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 이르러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일보(一步)를 내디디어 내선일체의 정신을 일상생활 내지 항구적 국민생활에 구현하면서 큰 깃발을 펴려이기에 이른 것은 실로 현명한 당국의 옥조금책(玉條金策)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관견(管見)을 개진한다면,

1. 경신숭조(敬神崇祖)의 정신 함양

황국신민의 열성적인 애국심은 경신숭조의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구현되는 것이므로 그 철저한 보급을 기하기 위해 먼저 조선 전국에 신사(神社)와 사사(社祠)를 건립함과 동시에, 마을의 지도자들부터 신봉(神棚) 봉설(奉設)의 모범을 보이고 점차 각 가정에 보급하여 가족 전체가 아침저녁으로 경건하게 행사를 실행하게 하며, 또 정동(町洞)에 집회소를 설치하여 월중 행사로 날짜를 정해 조선인과 일본인 혼체(混體)의 행사를 거행하여 양자의 정신 합치를 꾀할 것.

2. 조선인과 일본인의 결혼 장려

조선인과 일본인의 결혼 적령기 남녀로 하여금 서로간의 결혼을 실현하도록 함과 동시에 서양자(婿養子)의 영입도 장려함으로써 양자의 가정화(家庭化)를 촉진할 것.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국민일체의 정신이 항구적 국민생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실현하는 것은 본래 민중 개개의 의사 접근에 말미암은 것이어야 하겠지만 자연 상태에 맡겨 두는 것은 이른바 백년하청(百年河淸)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국가적으로 장려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3. 시국표어 간판 개선

현재 각 관공서의 입구 현판에는 시국표어의 큰 간판이 서 있는데 그 취지와 목적은 생업보국, 시난극복(時難克服) 등으로, 우리는 이를 볼 때마다 감복하여 그 방법을 아침저녁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일반 사회로 눈을 돌리면 그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글자를 아는 자로서 그 취지를 이해하고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좀 의문시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면, 조선의 옛 풍습을 볼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논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의 민중에 대한 시설 및 처분명령은 대개 관청에서 민간에 발령한

다음에 비로소 민간에서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습상 관공서의 입간판과 같은 것도 관공서 자체의 선전 광고에 그쳐서 민간에게 내리는 발령인지 판명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조선 민중에 대한 표면적 관측과 실질적 심리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른바 조선 특수사정의 일단이라고 할 만한 것으로서, 지방의 민간 마을처럼 시국에 어둡고 문자를 읽지 못하는 자가 많은 지방에서는 그 진의를 이해하는 자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국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통찰하여 지방의 관공서는 물론이고 도회지와 벽지를 불문하고 민가에 호별로 한언문(漢諺文) 혼용 입간판을 내걸도록 장려하여 이를 단호히 집행하면 본안(本案) 전체를 실천하고 구현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이를 통해 국가 총동원의 취지를 철저히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간판 세우기

관공서 또는 집회소는 입구 현관에, 정동(町洞)과 마을은 요소요소에, 각 가정은 2개 소로 하여 하나는 대문 입구에, 또 하나는 부엌 입구에 내걸 것.

2) 각 가정에 필요한 입간판의 글

대문의 것은 '내선일체하여 생업보국에 매진하자' 등의 글, 부엌에 세우는 것은 '들의 농사보다 부엌의 농사를 소중히 하자' 등의 글로 할 것.

3) 간판의 직접 제작

각 가정의 간판은 호주가 자기 부담으로 만든다. 공통의 선전 전단처럼 배급하지 말고 예로부터 입춘서(立春書)를 써서 붙이는 것처럼, 입춘서를 춘축(春祝)이라고 하여 일년 내내 행운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 염원을 입간판에 담아 가족 전체의 마음가짐을 강조할 것. 각 가정의 가족이 입간판의 취지를 실천함은 물론 특히 부엌 간판에 대해서는 가정의 주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의식주의 절약을 강조할 것.

4) 일본 국사의 철저한 보급

학교에서는 학생 또는 각종 집회 등을 이용하여 일반 민중에게 일본 국사에 대한 이해를 철저히 보급할 것.

〈출전 : 石明瑄 參議 『第19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8년〉

3) 참의 서병조(徐丙朝)

최근 조선의 농촌 상황을 살펴보면, 1933년 농산어촌의 진흥운동이 제창된 이래 벌써 5년이 되었으며 당국의 지도가 효과를 얻어 촌락은 새롭고 명랑하게 되어 자못 활기를 보여주고 있어 경사스럽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본 운동의 대국적(大局的) 견지에서 고찰하면 이제 훈련 기간을 지나 자주적, 자립적 실행기로 이행하는 중대한 가을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운동의 진정한 정신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민중은 정신적으로 이완되기 시작해 진취적 기상이 퇴색하고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국책 수행을 위해 본 운동의 확충 및 강화는 단 하루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로 생각됩니다.

특히 시국은 한층 중대해지고 있고 장기전으로 이행하고 있어 후방의 생업보국에 기대는 바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이 일본·만주·중국 경제 블록의 중추로서 국방상 중요한 일선을 형성해야 하는 이 때, 앞으로 농산어촌 진흥운동의 제반 기구를 확충·강화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제입니다. 민중이 진정한 자각을 통해 지방에서 청년단체·교화단체·부인단체·경제단체를 아울러 관민을 총동원하여 자치공려(自治共勵)로 이행해, 본 운동의 목적을 관철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래에 그 요령을 들자면,

1. 중심인물의 교양 강조

제1선에서 활약하는 중심인물이 본 운동의 진정한 정신을 이해하고 실천에 옮겨 모범이 되며 열의를 갖고 일상 속에서 마을 주민을 감화하는 데 노력하는 자라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거두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인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민중은 타율적일 뿐이라는 유감이 있습니다. 열과 성의를 가진 진정한 지도 인물의 교양 훈련은 본 운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대한 문제로 생각되며, 농촌 진흥을 위한 중심인물의 교양 확충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2. 지도 기관의 확충

이미 개설된 각종 지도 기관을 개선·확충함과 동시에 농촌 지도 실행원 양성소를 각 읍 면 단위에 설립하여 본부(本府) 농촌진흥과(農村振興課)의 통제하에 도 및 군과 긴밀

하게 연계하도록 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양성·훈련하도록 하며 그를 수득한 다음에는 각자 향리로 귀향하게 하여 그 마을의 지도 실행원으로서 읍·면리, 중견 청년, 부인회 그 밖의 각 단체를 망라하여 농산어촌민의 분발을 독려하고 적극적 자치공려(自治共勵)의 실행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또한 국방사상 보급과 시국 인식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이미 설치된 방호단(防護團)의 진용을 더욱 확충하여, 군(郡)에 방호단 본부를 두고 읍·면에 분단(分團)을 두며 각 동리에 분주소(分駐所)를 배치하여 농촌진흥운동의 중추 기관과 밀접한 연락을 취하면서 조선인과 일본인 혼연일체를 이루어 전시 태세하에서 생업보국의 실적을 거두고 후방을 더욱 공고히 지키기 위하여 농촌 지도 기관의 전면적 확충, 강화를 꾀하는 것은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3. 물가 통제

현재 일부 금융조합에서 농산물 공동판매, 소비품 공동구입 시설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그리 철저하지 못하며, 특히 최근에 주요 생산품 가격의 하락과 제반 물가의 등귀에 따라 농촌 사람들의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음에 비추어, 강력한 국가 권력에 의한 물가 통제 기관의 설치를 강조하는 바입니다. 구미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물가 균형에 따른 국민생활 안정책으로 거리의 원근에 상관없이 자국 내의 물자 수송에 대해서는 운임을 통일하여 어떤 산간벽지라도 같은 가격으로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생산품 판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통제된 가격으로 균형 있게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참으로 훌륭한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우리나라에서의 전매국(專賣局)의 담배가격 통제와 같이, 어떤 곳에서든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국가 권력에 의한 강력한 통제 기관을 발동해 운임의 통일과 함께 수급의 원활을 꾀하고 물가의 균형을 유지하여 국민생활 안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본 운동의 근본대책이라고 믿습니다.

(하략)

〈출전 : 徐丙朝 參議 『第19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8년〉

4) 참의 김윤정(金潤晶)

1. 초기 계획의 수행과 견인지구(堅引持久) 정신의 함양

처음의 정신을 견지케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말해 중도에 가볍게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정령(政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으로 인식되어 많은 지도자 및 피지도자들에게 커다란 의문을 갖게 할 것입니다. 요컨대 본 건과 같은 큰 계획, 큰 사업은 무엇보다도 위아래의 열정적인 신념과 뿌리 깊은 지속력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비로소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무적 혹은 기술적인 것은 그 다음에 오는 문제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술적·사무적인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종업원의 의견을 듣고 간단명료하게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겠지만, 이에 반해 근본적, 정신적 측면에서는 처음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본 건 운동이 갖는 권위의 경중을 묻게 되어, 앞에서 언급한 절대 조건인 신념과 지속력에 균열을 초래할 것입니다. 30년 계획을 10년 계획으로 단축하는 일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 본 운동의 성격을 이해하고 성공에 필요한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아는 사람들은 5, 10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이 같은 대사업을 언급하는 것은 경솔한 생각이며 변경된 기한은 또 조만간 변경하게 될 것이라고 비평하고 있습니다.

2. 각종 인쇄물에 대한 표어 삽입 장려

종래 농촌진흥운동에 관한 각종 인쇄물에 최초로 창도(唱導)하는 각종 표어나 심전개발(心田開發)의 표어들이 기입되었다고 기억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에 관한 각종 인쇄물의 여백에 반드시 '황국신민의 서사' 및 최초로 창도하는 각종 표어를 삽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구 몇 개를 넣거나 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정신을 견지하면서 끊임없이 그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컨대 본건 운동의 확충 및 강화 방법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본 운동의 권위에 대한 열렬한 신념과 참고 견디는 의지를 견지하는 것이 그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의 속도까지도 지배하는 절대적 조건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앞으로 확충 및 강화를 꾀할 때에는 먼저 이상의 두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략)

〈출전 : 金潤晶 參議 『第19回中樞院會義參議答申書』, 1938년〉

5) 참의 인창환(印昌桓)

시국에 비추어 볼 때 농산어촌 진흥운동의 확장 및 강화를 꾀할 방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각 면치(面治)의 세력 범위를 확장하고 전담 지도기관을 설치하여 획기적인 운동을 일으켜 다음의 사업을 강조하는 것이 시무(時務)라고 생각합니다.

1. 생산 증가

제반 시설을 개량한 경우 당국의 지도에 따라 사업 계획 및 실행 방법 등은 확실하게 보급되어서 이제는 실제 수익으로 공을 세우는 것 즉 생산 증가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면의 지도기관에서 각 마을의 중견 인물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일반 농민을 지도하여 역량을 농작의 능률 향상에 집중시키고 잉여 노동력을 이용하여 각 지방의 특산물을 가공하는 부업을 장려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간다면 이야말로 생업보국 운동으로서 가장 적절한 방책일 것입니다.

2. 소비 절약

일반 농민의 생활 상태를 살펴보면, 근본부터 경제관념이 결핍되어 있어서 저축할 여력이 없으며 자칫하면 분에 넘치는 낭비를 낳는 경향이 있어 참으로 우려되는 바입니다. 하물며 장기 전시 태세·국가 총동원이라는 오늘에 있어서 어떠하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긴장감 늦추지 않는 정신으로 소비 절약을 힘껏 실천해야 합니다. 가정의 일상생활에서 소비 절약에 한 가지의 표어를 이용하고 또 각 마을마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집합(集合) 또는 강화(講話)를 시도함으로써 각자 생활상의 수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근검에 힘써 잉여 이득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축해 거국일치의 자력갱생에 매진해야만 합니다.

3. 심전개발

지식 또는 도덕의 측면에서 농민 일반을 보면 아직 유치한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대대적인 계몽 운동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히, 부녀자 및 청소년은 더욱 심각합니다. 초비상의 시국에 직면한 오늘날 여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대 지식 및 도덕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적 소양을 함양하게 하는 것은 현재 가장 급선무입니다. 면의 지도 담

당자는 이 사업에 임할 때 많은 노력을 한층 더 하여 유종의 효과를 거두었으면 합니다.
(하략)

〈출전 : 印昌桓 參議 『第19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8년〉

6) 참의 황종국(黃鍾國)

(상략)

미나미(南) 총독 각하의 여러 시정 가운데 중핵을 이루는 것은 내선일체의 강조·실천으로 내선융화에서 내선일체로 대이상(大理想)이 착착 실현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 감격해 마지않는 부분입니다. 내선일체의 단결이 실질적이고 항구적으로 확보되면 모든 시정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진척될 것입니다. 시국에 비추어 내선일체를 심화하고 철저히 하는 데 유효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1. 당장 실시해야 할 사항

1) 조선인과 일본인의 결혼 장려

특히 일본인이 조선인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순리에 맞고 편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런 종류의 결혼을 크게 장려하여 조선인 여성을 아내로 맞이한 일본인 관공서 관리에게 특별한 대우 및 편의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2) 조선인과 일본인의 합자 사업 장려

조선인과 일본인 합자 사업을 장려하며 특히 관청의 허가 혹은 직접적인 감독을 요하는 사업 회사(無盡業¹²⁾·금융업·자동차업·광업·수산업 등)의 출자 사원, 주주 및 임원은 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하게 하고, 관청은 일정한 관여를 해 양자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처리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게 해 경제적 융합을 도모했으면 합니다.

12) 금융경제일반.

3) 조선 내 신문사의 내선융합

조선 내 각 일간 신문은 가급적 주식회사 형태로 조직, 변경하여 임원과 편집 간부, 기자는 조선인과 일본인을 함께 채용하도록 할 것.

4) 일본어 보급 철저

조선인과 일본인 간에 종종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여러 오해를 낳는 것은 언어 교육이 철저하지 못한 데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본어 장려와 관련해 계통적이고 조직적인 보급 및 설비를 갖출 것.

5) 사실적(史實的) 내선일체 촉진

예전부터 전해지는 내선 관계에 관한 역사적 문헌을 수집하고 발표해 역사적으로 같은 뿌리로서 불가분의 관계인 내선일체 관계를 천명하되 조선 정벌 등의 사적은 모두 배제할 것.

6) 각종 공적 기관의 협동 운영

각종 청년단·처녀회(處女會) 등 공적 기관 구성은 조선인과 일본인 협동으로 운영하도록 할 것.

7) 경찰 행정상의 내선일체화

경찰 관헌은 내선일체의 강화를 위해 지장을 초래하는 언동을 행하는 자를 엄중히 사찰하고 경고함과 동시에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분쟁에서 법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고등 정책적(高等政策的)으로 정상 참작의 여지를 남기지 말고 쌍방을 엄중히 처리할 것.

8) 일본 거주자에 대한 조선 인식의 철저화

일본 거주자 대부분은 조선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약한데 조선에 대한 무관심과 경시는 여기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영화·강연회·견본시(見本市)의 개최 및 선전·출판물의 발행,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조선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선전할 것.

9) 일본 도항 단속 철폐

조선인의 일본 도항 제한을 하루빨리 철폐할 것.

10) 중등학교의 내선 공학

중등학교에서의 내선 공학을 즉시 전면적으로 단행할 것.

11) 일본인에 대한 조선 특수사명을 철저히

내선일체의 실현은 병합의 큰 계획을 더욱 크게 넓히는 것이며 제국 건설의 대정신인 팔굉일우(八紘一宇)의 대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선은 병참기지라는 중대한 위치와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중류 계급 이하의 일본인에게 철저히 인식시켜, 그 왕성하고 순진무구한 애국심을 자극하면, 분명 국가적 견지에서 조선 및 조선인에게 애착을 갖게 될 것입니다.

12) 황군(皇軍)에 대한 신뢰 및 존경심 유발

조선군 관하에서 종래 내선일체에 관해 가장 진지한 노력을 지속함에 우리는 감사함을 금치 못하지만 그것을 더욱 강화하여 조선인이 신앙처럼 군대를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가까운 장래에 점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

1) 초등교육의 공학

내선일가(內鮮一家)의 형제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고 돕는 정신에 입각해 교육비 부담의 구별을 폐지하여 초등학교 내선 공학(內鮮共學)을 실시해 어려서부터 서로 접하면서 이해와 친목을 배양하도록 할 것.

2) 우편, 전매 및 관세의 일본과 조선 통일

우편과 전매 사업을 내선 통일하여 상호간의 세관은 폐지할 것.

3) 호적법상의 내선 차별 철폐

일본인으로 조선에서 출생한 자의 원적을 조선에 두어 식민지 관념을 타파하고 조선에 정착해 영구히 반도 개발에 임하겠다는 자세를 배양하며, 일본에서 출생한 조선인의 원적은 일본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호적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여 차별 관념을 가진 항목은 가급적 삭제 혹은 폐지할 것.

4) 행정 구역명 내선 통일

조선의 행정 구역명을 일본과 마찬가지로 현시정촌(縣市町村)으로 개정할 것.

5) 일본과 조선의 성명 통일

조선인 중 희망자에 대해서는 일본인과 같은 형식의 성명으로 고칠 수 있게 할 것.

6) 지원병 제도의 확장

지원병 제도를 확충하여 제국 영토 밖에서 평소 상주 경비를 담당하는 군대는 과반수를 조선인으로 편성할 것.

7) 일본과 조선의 풍속 통일

조선인의 복장, 가옥 구조를 가급적 일본 양식으로 고칠 것.

8) 출판물 단속

내선일체의 성스런 사업을 저해하는 출판물, 간행물에 대한 검열을 엄중히 할 것.

9) 조선인 관리 등용

본부 국장에 조선인을 등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

(하략)

〈출전 : 黃鍾國 參議 『第19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8년〉

7) 참의 김명준(金明濬)

(상략)

유구하고 지고한 우리의 국체관념을 반도 민중에게 철저히 인식시키고 국민성을 도야해 국민정신을 파악하게 하는 것은 조선통치의 대강으로, 시정 이래 시간을 거듭하면서 반도 민중의 국가 관념, 국민적 자각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중일전쟁 이후 각종 형태로 드러난 많은 사실은 이런 통치의 성과이며 참으로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통치의 대이상(大理想)인 내선 민중 상호의 강력한 정신적 결합을 구현하고 조선의 대중이 제국

국민으로서의 긍지를 확립함과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진정한 사명을 자각해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다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유효하면서도 적당한 두세 가지 사항을 들어보면,

1. 국체 관념의 명징을 도모하며 국민정신의 진작을 기하고 진정한 내선일가(內鮮一家), 화풍천리(和風千里)의 경지로 이끄는 것은 내선일체의 근저를 이루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 장기 강습회를 개최할 것.

2. 신사(神社)·신사(神祠)의 보급을 꾀함과 동시에 일반 민중에게 신사 참배, 국기 게양을 철저히 지도하고 나아가 이세신궁(伊勢神宮)을 참배하도록 장려하며 국비로써 이를 돕도록 할 것.

3. 각 마을에 일본어 강습회를 개최해 일본어 보급을 꾀할 것. 즉 학교 졸업생만으로는 인구의 자연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보편적으로 사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활동사진, 라디오 등을 잘 활용해 조선인과 일본인 융합에 필요한 자료 특히 시국을 중심으로 한 일치협력이 자연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할 것.

5. 4대절(四大節)의 축하 모임은 각 마을에서도 철저히 거행하여 국민 모두 축하할 수 있도록 할 것.

현재 각 마을에서 실행되고 있는 애국일 행사를 이용해 마을 안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친목을 효과적으로 도모함과 동시에 조선인만의 마을에서도 여러 행사의 형식과 내용을 통해 애향의 관념, 애국의 관념을 환기시키도록 노력할 것.

앞 항목의 각종 행사는 일상의 습속과 신념에서부터 점차 국민성의 조성(造成)으로 이끌어 가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국민 신념 강화책에 관해서입니다.

6. 이궁(離宮)의 조영(造營)과 황족 전하의 봉영(奉迎)

반도민 총동원의 적성(赤誠)으로 이궁을 조영할 것. 그리고 황송스럽지만 황족 전하께서 수시로 발걸음을 하신다면 반도 민중의 정신 순화에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7. 조선과 일본 법역(法域)의 조정

정치적으로는 참정권을 요망하며, 경제적으로는 관세를 철폐하고 화폐를 통일하고, 인문적으로는 반도인의 일본 등용 등을 논의하는 것은, 요컨대 그 정신은 내선일체의 구현을 바라는 마음 외에 다른 뜻은 없습니다. 따라서 더욱 애써서 이와 같은 민의를 받아들이고 점차 내선 특수 법역의 조정에 힘씀으로써 내선일체 관념을 확고히 하기를 바랍니다.

(하략)

〈출전 : 金明濬 參議 『第19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8년〉

8) 참의 박영철(朴榮喆)

(상략)

1. 내선 결혼의 적극 장려

내선일체의 정신을 일반 국민에게 철저히 인식시키고 그 완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신의 결합이 근본적인 바탕이므로 최근 이러한 결혼이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기쁘기 그지없는 현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일반인은 이 결혼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다소 특수한 경우로 보면서 경원시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실행을 주저하는 자가 많은 상태이므로 종래대로 이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맡겨 두고 기다리기보다 무언가 방법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이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 내선 여성을 단원으로 하는 근로보국(勤勞報國) 단체 조직

국가 총동원이라는 시국에 가정의 부녀자에게 근로정신과 단체 관념을 고취하기 위해서 가장 긴요한 것은, 도시나 계급에 상관없이 조선인과 일본인 가정의 부녀자를 망라해 근로보국의 단체를 조직하여 생산 작업에 동원함과 아울러 이를 통해 양자 간의 융합을 도모하여 가정적으로도 내선일체의 마음을 강화해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내선 사찰의 상호 참배 장려

내선일체를 강조함으로써 조선인의 신궁 참배자가 격증하여 황실 숭배의 관념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음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쁜 현상이기는 하지만, 사찰에 대해서도 서로 종지(宗旨)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일본인은 조선 측 사찰에, 조선인은 일본 측 사찰에(종래 참배하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서로 오가며 참배하여 종교적으로도 융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출전 : 朴榮喆 參議 『第19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8년〉

9) 참의 원덕상(元惠常)

(상략)

현 시국하에서 내선일체 정신을 실현하고자 지원병 제도 실시 및 교육령 개정을 실시하는 것은 반도 민중의 다년간의 숙원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진심으로 감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대한 시국에 직면해 공존공영의 국가적 견지에서 내선일체의 정신은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시종일관 최선을 다하여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철저히 그것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본과 조선은 지방적으로 고유한 언어·풍속·관습을 보유하며 의식주나 그 밖의 생활양식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내선일체의 정신을 즉각적으로 일상생활에 실천하는 데는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완전한 황국신민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보급·인지 능력의 향상에 따라 인습 타파·생활양식 개선과 같은 점진적인 실현을 추진하여야 하며 당장의 응급책으로는 아래 사항을 실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1. 먼저 가정적으로 각자 가정에서 가장부터 1) 국체명징(國體明徵) 2) 내선 민족은 본래 동문동종(同文同種)이라는 것 3) 세계 속의 일본의 위치와 그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각오 등에 관해 수시로 이야기를 나누고 내선 일치단결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고취하여 국민성 양성에 힘쓸 것.

2. 반도 민중 중에는 아직 일본 정신 즉 야마토혼(大和魂)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많

습니다. 이 기회에 전 조선의 교육가, 관공리, 그 밖의 지식계급을 총동원해 독특한 일본 정신을 철저히 고취·주입시킬 것.

3. 전 조선에 일본어 보급 상황을 조사하여 일본어를 모르는 자를 위해 수시로 적절한 방법을 찾아 강습회를 개최하여 국어 보급을 꾀하고 또한 각 가정에서는 가능한 한 국어 사용을 장려할 것.

4. 내선융화 혼연일체를 위해서는 먼저 내선 결혼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의 화합,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서로 결합함으로써 비로소 항구적인 내선 일체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략)

〈출전 : 元惠常 參議 『第19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8년〉

10) 참의 정난교(鄭蘭教)

(상략)

내선일체를 이루어 현 비상시국에 대처하고, 국위(國威)를 사해에 두루 떨치기 위해서는 조선인과 일본인에게 공평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한편 모두 평등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조선인의 자질 향상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방책으로,

1. 국민 3대 의무제도의 실시와 참정권 부여

이번에 발표한 육군특별지원병령 및 조선교육령 개정에 따라 조선인의 국가에 대한 의무부담의 길이 다소나마 열렸지만 병역과 더불어 교육의 의무제도 실시를 촉진하여 3대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중의원 의원 선거법 시행의 실현을 통해 조선인에게도 진정한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을 추구하고 충성으로써 군국(君國)에 보답하려는 관념을 환기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2. 유능한 조선인 발탁

종래 자칫 소외되는 경향에 있는 조선인 유능 인사를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지위에 더욱 많이 등용해야 합니다.

3. 내선 결혼의 장려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것.

4. 일본인의 조선 및 조선인에 대한 이해의 철저

선진 국민인 일본인 사이에 지금 멸시·몰이해의 경향이 존재하는 것은 내선일체 정신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은 국민 일치단결로 황위(皇威)를 세계에 떨치고자 하는 성려(聖慮)를 받드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략)

〈출전 : 鄭蘭教 參議 『第19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8년〉

11) 참의 김관현(金寬鉉)

(상략)

1. 경신존황(敬神尊皇)의 정신 함양

현재의 비상시국에 국민정신 발양(發陽)이 국가의 융성을 좌우하는 첫째 요소라는 점은 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장기전 태세하에서는 그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특히 조선에서의 국민정신 발양은 내선일체 정신에서 나오는 바가 큼니다. 이에 내선일체의 정신을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에 구현해야 하는 일은 지금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방책으로는 전 조선의 리(里)를 단위로 마을마다 신사(神社)를 건립해 국민의 신앙심을 고양함과 동시에 국민정신 총동원의 본 취지를 살리며, 또 일정한 집합소를 세워 해당 마을에서 1명의 지도자를 선출해 매일 아침 마을 주민 집회를 열어 국기를 게양하고 황국신민의 서사를 봉독케 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숭경의 관념을 한층 고양시키고 시국을 인식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서술한 사항은 현재 지방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이를 전 조선에서 한층 철저하

게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전쟁 뉴스 영화 상영

전선에서 황군의 활약상을 일반 민중에게 알리기 위해 신문만으로는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매달 한 번이라도 마을 주민을 모아 놓고 '뉴스 영화'를 직접 보여 주어 민중이 그것을 실감하여 진심으로 감동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소비 절약과 저축

물자 절약 정신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매달 가장 가까운 우체국에 저금하게 하고, 그것을 후방 보국저금으로 마련해 내선일체 정신을 함양할 것. 이처럼 정신·물자 양 측면에 걸쳐 철저히 실현을 도모하면 국민의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침투하게 될 것입니다.

(하략)

〈출전 : 金寬鉉 參議 『第19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8년〉

12) 참의 이종섭(李鍾燮)

(상략)

1. 황국신민의 서사 철저

내선일체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요체는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각종 회합에서는 물론 학교 등에서 그 서사를 봉독하고 있는데, 이를 더 널리 확대해 농산어촌 민중의 일상생활에 비추어 반드시 아침저녁으로 가족 모두 하나 되어 낭독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 교육의 철저

내선일체의 정신을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힘을 빌려야 하므로, 조선에 의무 교육을 하루 속히 도입하고 현행 교육령을 개정하여, 조선인과 일본인 모두 특별경제(特別經濟)에 의해 경영되는 학교 경영을 철폐하고 진실로 내선 공학

에 의한 완전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황국신민으로서의 정신을 조선인과 일본인 구별 없이 강화할 때에 조선인과 일본인 상호 간에 어떠한 간격도 만들지 않고 내선일체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대저 오늘날의 대중심리를 살펴볼 때 일본인과 조선인 교육 시설에 관해서는 1부, 2부라는 특별경제를 폐지하여 진정한 내선일체의 경지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3. 내선 관리 정원제도 철폐

오늘날의 제도에서 관리의 정원제를 설치하여 조선인과 일본인의 정원에 구속되는 것은 필경 내선일체 정신의 구현에 큰 저해 요소일 것입니다. 한일합방을 이룬 지 벌써 29년이나 되어 지금 반도 민중은 황국신민으로서의 행복을 깨닫고 있고, 특히 이번에 사변이 발발하자 황국신민의 일원으로서 정성을 다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번 기회에 모든 차별을 철폐하여 진실로 내선은 동근동조(同根同祖)라는 근원을 발휘해야 할 이 때에, 반도 민중은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은 채 내선일체의 정신을 구현하기에 이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중앙 관청에는 일본인, 지방 관청에는 조선인을 주로 배치하고, 경찰서장에는 대부분 일본인, 군수는 대부분 조선인을 임명하는 현 상황에 비추어 이러한 제도를 점차 철폐하여 진정한 인물 본위로 운영을 한다면 내선일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4. 내선 결혼 장려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결혼을 장려하여 혈족적 일체를 이루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풍속이나 관습 등을 지금 당장 철저히 동화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먼저 혈통적 일체를 구현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5. 특별지원병 제도의 취지 철저

반도 민중에게 획기적인 갱생은 본 제도의 실시로 절정을 이룹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일반 민중에게 더욱 철저히 주지시키고 국방의 일부를 분담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하여, 황국신민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자각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출전 : 李鍾燮 參議 『第19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8년〉

13) 참의 장직상(張稷相)

(상략)

내선일체의 정신은 지난번 총독 각하의 교시 중에 “일본인은 우월감을 버리고 조선인은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는 말에 충분히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선일체는 제도상 혹은 교육상 혹은 언어상 혹은 산업경제상, 모든 방면에서 실현되어야 할 사안인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자의 진정한 일심동체, 감정에서도 이해관계에서도 차이가 없고 차별이 없는 마음의 경지인 정신적 결합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 내용과 같이 그 정신을 일상생활에 구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공적 생활에서보다 사적 가정생활에서, 의식주는 물론 일상의 모든 행사에서 무엇보다 일본화를 피하는 데 있습니다. 일본화한 모든 행사는 결국 정신에서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행사를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그를 항구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인의 일본인화 혹은 조선에서의 각종 문물제도를 지금 당장 일본과 마찬가지로 바꾸기에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화하지 않음으로써 내선일체에 효과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자 일체를 이루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국체 관념을 일반 민중에게 철저히 주지시키는 일입니다. 국체 관념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각종 방책이 있지만 아래에 몇 가지 사항을 근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1. 경신숭조 관념의 함양

조선과 일본 공통의 국민 도덕인 경신숭조 관념을 함양하고 고취하여, 이를 각 가정에서 실행함으로써 충효라는 대의로 나아가게 하며 다시 이를 멀리 조상신에게까지 이끌어 국민으로서의 신념을 견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 1) 지금 본부(本府)에서 장려하는 대마(大麻)를 각 집에 봉안하게 하고 자신의 조상의 위폐도 함께 봉사(奉祀)하여 아침저녁으로 예배를 드려 조상 숭배의 관념을 통해 국가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멀리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神)의 신덕(神德)을 기리도록 할 것.
- 2) 각 마을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경신의 관념을 환기시키기 위해 청정한 곳을 골라 대마봉사전(大麻奉祀殿)을 설치하고 이 대마봉사전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지방에서 토속적 신앙의 대상인 천신지기(天神地祇)나 선현유열(先賢遺烈)의 영령을 받들어 신국 일본(神國日本)의 모습을 반도에도 구현할 것.

2. 일본어 보급

국체 관념의 명징을 피하고, 조선인의 일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앞에 언급한 사항과 더불어 가장 필요한 것은 국어의 보급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1) 각 초등학교에 국어 강습소를 설치하여 70% 이상의 미취학 아동과 일반 성인에게 간단한 국어를 가르칠 것.

2) 조선의 특수한 사정에 맞춘 국어 교육과 관련해 권위 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일본사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어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 강습회를 주요 도시와 읍에 개최할 것.

3. 내선 결혼 장려

내선일체를 구현하는 데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조선인과 일본인 상호간의 결혼입니다. 즉 이를 장려하여 도와줌으로써 융합을 통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내선의 일가를 결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장려하기 위해,

1) 조선인과 일본인 간에 결혼한 자를 직업적, 사회적으로 우대할 것.

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외교관에 대해 외국인 배우자를 금지한 내혼의 발령과는 반대로 관리에 대해서 내선 결혼 장려의 내혼을 발령할 것.

2) 일본인 중 고귀한 이의 가정에서 조선인과의 통혼이 성행하도록 할 것. 현재 조선인과 일본인 간에 다소 결혼이 성사되고 있지만 그 대부분 자유 결혼으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일반의 모범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본 문제에 대해 나는 회의가 열릴 때마다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실시하게 되면 일본인의 우월감과 조선인의 시의심(猜疑心)은 분명 자연히 해소될 것입니다.

4. 일본 사정 시찰

조선인과 일본인이 진정한 일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도 민중에게 일본의 풍물을 접할 기회를 줘서 내선이 서로 뿌리가 같음을 알려줌과 동시에 일본의 풍물을 소개하여 일본인에 대한 경애의 관념을 환기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1) 본부에서 각 지방의 중견인물 중에서 청년들을 선발해 이세 신궁(伊勢神宮) 및 그 밖의 신사에 참배하게 할 것.

2) 일본의 농촌에 조선인 청년을 보내 그 땅의 풍습과 영농 방법 등을 익혀 귀국 후 자작농으로서 인근 지역에 모범이 되도록 지도할 것.

5. 풍습의 일본화

의식주를 일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 1) 일본인의 생활 중에서 조선인이 금방 모범으로 삼을 만한 사항, 예를 들면 색깔 옷의 착용이나 식사를 간단하게 하는 것,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 등은 적당한 단체를 조직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며 실행하도록 권장할 것.
- 2) 유식 계급은 솔선수범하여 민중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줄 것.

6. 이론보다 실행

내선일체의 이상은 백 가지 이론보다 한 가지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지원병 제도가 시행되어 적어도 장병들이 같은 병영 안에서 군국(軍國)을 위해 아침저녁으로 생활을 함께 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 제도의 개정을 통해 내선 공학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경상북도에서는 올해 4월에 경주중학교 설립과 함께 조속히 일본인도 입학하게 하여 내선일체를 실현한 것은 무엇보다 기쁜 일입니다. 요컨대 앞으로는 가공(架空)의 이상보다 실천이 무엇보다 유효적절한 대책이 될 것입니다.

이상 각 항목은 이를 체득하여 각자가 행사와 일상생활에 구현함으로써 그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일상생활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길은 앞에 언급한 항에 기초해 서로 정신적 친목과 이해를 지니고 피아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을 때까지 각종 시책을 필요로 합니다. 함부로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여 차별적 관념을 야기하는 행동은 서로가 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 총독부의 대방침(大方針)을 가지고 행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임을 확신합니다.

〈출전 : 張稷相 參議 『第19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8년〉

14) 참의 현현(玄櫓)

(상략)

내선일체의 정신을 일상생활에 실현·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생활을 두 계통, 즉 1. 국가 생활 2. 사적 생활로 나누어 그 대책을 기술하고자 합니다.

1. 국가 생활에서의 내선일체

반도 민중을 황국신민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자질이 향상되도록 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와 훈련을 행함으로써 본 정신을 항구적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책으로는,

1) 황거요배(皇居遙拜)의 여행(勵行)

황실의 존엄을 느끼고 황은에 감사하기 위해 공적인 집회나 국가 행사는 물론 민중의 사적 집회 혹은 의식을 거행하는 경우에 반드시 동쪽을 향해 요배하게 할 것.

2) 국기 게양의 여행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국가 관념을 표현하는 데 국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도에서는 국민정신작흥운동(國民精神作興運動)이 실시된 이래, 일반은 국기에 대한 관념이 향상되었지만 농산어촌에는 아직 철저히 보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종이 찢가리, 나뭇가지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은 용서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해도 도시에서 상당한 문호(門戶)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처마 머리에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 이가 있습니다. 또한 어찌다 게양을 하였어도 형식을 갖추지 않아 불쾌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점차 통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국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는 국민적 사상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를 제대로 인식시키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일본인은 좋은 시범을 보여 준다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신사 참배 장려

경신숭조의 관념은 이미 내선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며, 특히 황민으로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있는 오늘날, 황국 정신의 진수를 접촉하게 하고 보은감사의 관념을 배양하여 중념(衆念)의 귀일(歸一)을 체득하게 하는 데에는 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만큼 진지한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또한 반도인의 경신숭조의 형식은 유교에서 연유하여 일본과 다르기는 하지만,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이후 반도인의 형식적 유교 도덕 문화에 대한 신념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으며, 신국 황도 정신은 위대한 진리이자 존재라고 믿는 자들이 갑자기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종래에도 참배를 장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시세·습속·감정의 지배 등으로 인해 다소 소극적이었는데, 앞으로는 모두 이러한 좋은 기회를 이용해 이를 더욱 장려하고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4) 일본 시찰 장려

지난해 본부(本府)와 각 도(道)의 기획하에 일본 시찰단을 파견하였는데 조선 전체에 걸쳐 여러 계급에서 인선을 실시하여 일본의 문물·제도·풍속과 인정·산업 및 경제의 상황 등을 시찰케 하여 큰 성과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자연 중단된 상태인데, 앞으로는 내선일체의 정신을 더욱 생활 속으로 침투시켜 그 구현을 위해 일본의 발달된 문화 상황을 시찰하게 하여 내지에 대한 인상을 강화하고 많은 추억을 만들게 하면 분명 효과적일 것입니다.

5) 이미 시행되고 있는 행사의 독려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다음에 언급한 여러 행사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지도와 훈련을 더하여 마음 속 깊은 곳까지 침윤하게 하여 머지않아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고 믿습니다.

- (1) 국민정신작흥운동 주간 행사
- (2) 국민정신 총동원 후방보국 강조 주간 행사
- (3) 농산어민 근로일(勤勞日) 설정 행사

6) 읍·면에서 4대절(四大節) 배하식(拜賀式)의 거행

종래 국가의 최대 축일인 1월 1일·기원절(紀元節)·천장절(天長節)·명치절(明治節)의 경축행사를 읍·면에서는 거행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공공단체로서 읍·면에서도 거행하게 하여 일반 민중과 함께 국가 축전의 기쁨을 나눔으로써 국민성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진영(眞影)을 봉대(奉戴)하는 의례에 이르지 않음에 따라, 칙어봉독(勅語奉讀)·국가 합창·황거 요배·황국신민의 서사 일제 낭송 등을 중심으로 식순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은 국민 생활로서 지도하고 훈련하여 일상생활에 실천하고 구현하게 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사항들인데, 이를 처음 실행할 때에 정치적 혹은 교화적으로 교양을 받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습관성이 되어 버려 실천공행(實踐躬行)의 영역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으로서의 근본정신을 확립하여 내선 대립적 사상과 감정을 해소하더라도, 한편으로 조선인과 일본인의 사적 교류가 원만해져 진정으로 융화하지 못한다면 이심일체(二心一體)의 형태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일심일체(一心一體)를 이

루기 위해서는 국민 각 개체가 단결과 융합을 더욱 공고히 이루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를 사생활의 측면에서도 검토하여 실천하고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2. 사적 생활에서의 내선일체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에는, 조선인과 일본인 상호간에 개인적 사교나 기타 회합의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동료로서,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혹은 같은 사원으로서 정을 돈독히 하고 의리를 지키며 진실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믿으면서 더욱더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마음이 하나 되게 하지 않으면 내선일체의 정신을 이해하고 파악하기에 곤란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호간에 자칫 오해를 불러 불쾌감을 느끼고 결국 경원하기에 이르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 잘 거듭하여 서로 궁리하고 연구하여 반성·양겸(讓謙)·아량·포용 등의 덕을 발휘해 사적 생활에서 원만한 친분을 맺고, 편협심을 버리고 우월감을 벗어 던지며 도량을 넓혀 두 눈을 크게 떠서 잘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 1) 상호간의 장·단점을 잘 이해해 둘 것.
- 2) 관습의 차이를 잘 알아 둘 것.
- 3) 예의범절이 익숙하지 않아 불쾌감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연구하고 조사하여 그를 일반의 교도(敎導) 자료로 활용할 것.
- 4) 생활 정도의 차이에 따른 모든 결함은, 비판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향상, 개선할 수 있도록 권유할 것.
- 5) 상호간에 부주의한 언사를 조심해서 사용할 것. 예를 들면, 2인칭을 말하지 않고 ‘일본인은’ 이라든지 ‘조선인은’이라고 추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 것.
- 6) 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이웃에 거주하게 하여 이웃관계를 맺도록 할 것.

이상은 소소한 사항으로 핵심을 얻지 못한 우견(愚見)이지만, 위정 당국에서 아무리 충성스러운 황국신민을 육성하는 데 힘을 쏟아도 일반 국민에게 내선일체의 정신을 이해시켜 서로 믿고 의지하는 바가 없으면 결국 이러한 이상은 실현되지 못할 것이며 또 본 정신을 구현하는 데 장애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사항을 열거해 보았다.

(하략)

(출전 : 玄櫛 參議 『第19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8년)

15) 참의 김사연(金思演)

(상략)

1. 5개조의 서문(誓文) 복응(服膺) 실시

메이지 천황(明治大帝)이 환발(渙發)한 5개조의 서문(誓文)은 우리 일본 제국의 불후의 국시로서 만민 보전의 대도(大道)인 것은 황국신민이 일치하여 굳건히 새겨야 할 바입니다.

이 5개조의 서문이 가진 정신을 마음에 깊이 새겨 간직하여 관(官)은 이를 정치에 반영하고 민은 이를 체득하여 실천함으로써 만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1) 널리 회의를 열어 만기(萬機)를 공론으로 정할 것.

널리 인재를 모으고 중지(衆知)를 모아 경력·문벌·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바르고 거리낌 없이 바른 말을 하는 선비라도 경원하지 않을 것.

2) 상하의 마음을 하나로 하여 활발하게 경륜을 행하여야 할 것.

관민일치의 단일한 수양기관을 설치하여 관민 협력을 통해 민중의 수양 능력을 정치적 훈련 수준으로까지 한층 더 신장시켜, 일반민들이 경륜을 행할 만한 기관을 확립할 것.

3) 서민에 이르기까지 관무일도(官武一途)의 뜻을 이루어 인심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할 것.

우리는 인심을 나태해지지 않게 하라시는 천황의 큰마음(大御心)을 잘 받들어 살펴야 함에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현재의 우리 조선에는 언론 기관의 통제를 확충하여 기존의 중심인물에 더하여 황도 정신을 신념화한 인사를 따르게 하여 쇄신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언론을 통한 민중 강화를 확대하도록 하여 민심의 태만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구래의 누습(陋習)을 타파하고 천지의 공도(公道)를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이도(吏道)의 쇄신 확립은 관이 이미 강조하여 실천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민간에서도 횡적인 연락을 긴밀하게 하고 스스로 경계를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황도 선양의 민간단체를 설립하여 각자의 수양과 반성은 물론 사상적 계몽활동을 실시하여 조선 민

중의 귀추를 보여 천지의 공도에 반(反)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지식을 세계에서 구하여 크게 황기(皇基)를 펼쳐야 합니다.

학교 교육에 일대 쇄신을 가해 격물치지(格物致知)·지행합일(知行合一)의 신념 교육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강화하고, 동시에 고전 교육과 국학을 통한 복고적 정신을 함양케 하여 일본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실행과 지식의 면에서 각성하여 체득하게 할 것.

〈출전 : 金思演 參議 『第19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8년〉

16) 참의 한규복(韓圭復)

1. 국가 관념의 함양

조선인과 일본인이 정신적으로 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에 대한 사상 양성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체명징(國體明徵)의 취지에 따라 널리 민중에게 국가 관념을 주입함과 동시에 국가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사회교화 사업을 철저히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 사회를 비롯해 기존의 유식계급(有識階級)을 현대를 이해시킬 수 있는 기관으로 조직하여 각종 수단을 강구함과 동시에 그 밖의 무식계급(無識階級)에 대해서는 말로 전달하거나 연극 등을 통해 감동을 이끌어 내는 것이 지름길이자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2. 일상생활의 일본화

- 1) 집집마다 반드시 신봉(神棚)을 봉안하여 아침저녁으로 배례(拜禮)하게 할 것.
- 2) 조선인 본위의 소학교, 중학교에도 빠짐없이 진영(眞影)을 봉안하는 영광을 내려 4대절에 학생들의 배례에 가족들도 반드시 참석시킬 것.

3. 경제생활에서 긴밀하게 제휴

모든 사업 경영에서 내선 자본의 공동투자를 장려하고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것.
현 상황에서 기업의 대부분은 일본인계 자본으로 성립되어 조선인으로서 참가하는 자

가 있어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전적으로 조선인 자본가가 사업 경영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당국에서도 이들에 대해 유도·권장에 힘써 경제상의 이해 관계를 긴밀하게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출전 : 韓圭復 參議 『第19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8년〉

17) 참의 김상형(金相亨)

(상략)

내선일체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은 반도 민중의 일본화에 달려있습니다.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지를 받들어 실시되어 온 조선 통치는 현재 총독 각하의 대영단과 중일전쟁으로 드러난 반도 민중의 자각과 수양이 진심으로 하늘에 닿아, 경사스럽게도 조선인 지원병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조선교육령의 일대 개정을 실시하게 되어 조선 통치에 한 획을 그었으며 지금 심화된 내선일체의 정신은 전국을 풍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은에 감격함과 동시에 충심으로 그 기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선일체 구현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여 성지에 보답하여야 한다는 점을 절감합니다. 그 방책으로는,

1. 국체관념의 양성과 대마(大麻)의 봉재(奉齋)

반도 민중으로 하여금 진정한 황국신민으로서 내선일체·애국충성의 마음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천황 폐하를 경모하여 받드는 정조(情操)를 고양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형식으로든 숭고한 황실과 황조(皇祖)를 우러러보는 풍속과 정조를 길러 매사에 마을에서 학교에서 황거망배(皇居望拜)·천양무궁(天壤無窮)을 기원하고 마음을 정화하여 황국신민임을 맹세함으로써 진정한 황국신민으로서 자각을 하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국기(國旗)와 마찬가지로 대마봉재(大麻奉齋)를 일반 민중에게 보급하는 것은 국체 관념을 인식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대마 봉재에 관해서는 일찍이 본부(本府)에서 생각하고 있던 바로, 관공리의 가정에서 솔선하여 봉재하고 일반 민중에게 모범을 보이는 방침을 취하였지만 아직 일반 민중에게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체는 일본 정신에 따라 견고해졌으며 일본 정신은 황실 중심의 경신숭조(敬神崇祖)의 아름다운 신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신이 없으면 형식만 있는 일본인으로 진정한 일본인이 아니며 외국인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대마 봉재는 진정한 일본인이라는 표현으로 국민 도의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그 보급을 철저히 도모하는 일이 영세민 계급에게는 경제적으로 쉽지 않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도(道)의 경비 보조 혹은 뜻있는 자의 기부를 통해 실비의 반값으로 봉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2. 생활양식의 일본화와 일본어의 보급

물질적 생활에서 조선 일반 민중의 생활 상태를 살펴보면, 영세 계급의 경우 참으로 가엾기 그지없는 상황이고 다른 한편으로 중류 이상의 여유 있는 가정의 경우에도 상당액의 생활비를 지불하면서도 문명사회의 여러 시설의 은혜를 입지 못해, 주부는 매일 의 식주에 쫓기며 무의식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많고 주택의 시설 결함으로 인해 연료나 기타 비용의 지출이 초래되는 상황이므로 생활 개선의 필요성은 반도 민중도 자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일본식에 가깝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식으로의 개선은 형식적 혹은 가정 경제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므로 일본식 생활은 일본 정신을 낳게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식 생활의 첫 단계는 조선인끼리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조선인과 일본인 상호간의 결혼을 장려하고 또 여유 있는 가정에서는 일본인을 가정부로 맞아 점차 생활양식을 일본화해 가야 합니다. 이렇게 내선일체는 정신에서 형식으로, 형식에서 정신으로 융합을 이루어야만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선은 모국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며 반도 민중이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도 일본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조선 민중은 일본인으로서 강력하게 나아가야 하며 일본인으로서 일본식으로 생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노력하면 조금씩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실행을 위해서는 학교 및 사회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관공리의 직을 가진 자가 솔선하여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출전 : 金相亨 參議 『第19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8년〉

18) 참의 노영환(盧泳奐)

(상략)

1. 국체명징과 경신승조

한일합방의 대업을 이룬 지 이제 30여 년, 반도인의 정신 훈련에 일대 혁신을 보이고 있지만, 그 정신을 일상생활에 실천·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도 민중에게 국체존중 및 경신승조의 관념을 깊이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책으로서 먼저 반도 민중의 가정에 대마(大麻)를 봉안하고 황실의 건국 정신을 받들어 위업에 감사함으로써 황국 신민이라는 각오를 자각하여 밤낮으로 숭배하는 신념을 고무할 것.

2. 내선 결혼 장려

현재 내선일체를 고취하여 조선인과 일본인의 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실로 기쁘기 그지없는 현상으로, 내선일체 정신의 구현에 가장 유효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선 지방 유력자 및 관공리들이 솔선하여 실시하고, 일반 민중에게 중용하며 장려하여 이것이 점차 서민 계급까지에도 실현될 수 있다면 가장 시대에 적합한 방책일 것입니다.

3. 일상용어 단속

한일병합 이래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아직 일상 언어 면에서 내선용화가 결여된 용어를 가끔 듣게 되니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는 매우 사소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내선일체 정신을 구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반도인의 어떤 계급에서는 일본인에 대해 아무개라고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식천학(無識淺學)하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용화를 해치기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본인도 반도인에 대해 아무개라고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지 않으면 점차 다음 세대들의 관습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내선일체 정신의 구현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특별한 방책을 활용하여 그런 용어를 근절시켜 가는 일이 현재의 급선무입니다.

4. 단발 장려

오늘날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종래의 편발(編髮)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자가 지

방의 명문 사족이라는 자들 중에 많습니다. 이들 편발을 그대로 유지하는 자들은 완고하고 부패한 사상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에 반감을 가진 내선일체 정신을 저해하는 자들이므로 철저한 단발을 실시하여 내심과 외견 모두에서 문명 국민으로서 내선융화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할 것.

5. 조선인과 일본인 관리의 차별대우 철폐

한일병합 이래 조선 반도는 크게 발전하고 향상되어, 점차 일본과 마찬가지로 도시와 농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반 생활에서도 일본과 큰 차이가 없어진 오늘날, 일본인 관공리를 특별히 대우하여 이로 인한 일본인의 우월감 내지 반도인의 차별감은 민중 지도의 제1선에 서 있는 관공리급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루 속히 이러한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은혜를 널리 확대해 반도 민중에게 지성봉공(至誠奉公)의 실적을 거두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략)

〈출전 : 盧泳奐 參議 『第19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8년〉

19) 참의 이근수(李瑾洙)

장기 전시 태세하에서 제국 안팎의 정세에 비추어 반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내선일여(內鮮一如), 황국신민으로서의 태도를 공고히 다지고 모두 일치단결하여 황도(皇道)의 선양에 힘쓰는 것은 반도 거주자의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육군 특별지원병’ 및 ‘개정 조선교육령’ 두 제도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장래 ‘징병’ 및 ‘의무교육’ 두 제도 실시를 위한 획기적인 새로운 단계로서, 실로 내선일체의 대약진이라고 할 수 있어 참으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관민이 하나 되어 이 정신을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에 실천 및 구현하는 데 매진하는 가을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책으로 몇 가지 사항을 개진하여 참고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1. 강습회의 개최

내선일체 정신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해 저명한 인사를 지방에 파견하여 내선의 역사

적 관계를 강연을 통해 철저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일본·조선 두 민족 동화의 역사적 사실을 이해시킴으로써 일본인의 우월감, 조선인의 비굴감을 일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일본어 보급 강조

과거의 한일합방은 기탄없이 말하자면 형식적인 제1 병합으로, 이때야말로 진정 정신적으로 제2 병합을 완성할 절호의 가을이라고 믿습니다. 정신적 합병을 꾀하는 데는 무엇보다 서로의 언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를 모르면 자연히 의심을 초래하고 의심은 의사 소통을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내선일체의 성과를 거둘 제1 요건은 일본어 보급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의 보급은 당국의 장려, 지도에 따라 점차 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나아가 그것을 한층 더 강조하고 철저히 매진하기 위해서는 초등교육 기관의 급속한 확충이 필요함은 물론인데 당장 응급의 방책으로서 서당 및 농촌 야학회의 증설을 계획하고 간단한 일본어를 보급시킬 필요가 절실합니다.

3. 내선 결혼 장려

조선인이 즉시 일본인이 되고 일본인이 즉시 조선인이 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결혼을 하고 피를 섞어 함께 자손을 낳아 기르고 한 술 밥을 먹으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면 기대하지 않더라도 내선일체의 성과를 거둘 것이 분명합니다. 최근 조선인과 일본인 간에 결혼하는 예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참으로 기쁘기 그지없지만 당국에서 어떤 형태로든 방책을 제시하여 이를 더욱 장려해야 합니다.

4. 유적의 정화 보존

춘천 우두산 부근에 스사노 노미코토(素盞鳴尊)가 주거한 유적지가 있다는 사실이 지방은 물론 일반에서도 굳은 신념으로 자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해 적극적 시책을 펼치면 내선 양 민족 동화의 역사적 사실을 이해시키는 데 큰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5. 초등학교의 공학

심상과(尋常科) 소학교(小學校)에 고등과를 설치할 경우 고등과는 내선 공학으로 할 것.

6. 시국 인식의 철저

시국에 대한 인식, 특히 장기 전시 태세하에서 조선의 중요성 그리고 제1선에서의 황군(皇軍) 장병의 분투 등에 대한 인식을 군사 행동에 지장이 없는 한 일반에게 알려서 나아가 어려운 때에 힘을 합쳐야 한다는 신념을 굳건히 할 것.

7. 신봉(神棚)의 봉재(奉齋)

신봉·대마(大麻)의 봉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장려할 것.

(하략)

〈출전 : 李瑾洙 參議 『第19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8년〉

20) 참의 이승우(李升雨)

(상략)

1. 신앙의 통일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신앙의 대상은 신사(神社)이므로 조선에서도 각 도시에 신사를 설치하여 일반 내선 민중에게 참배하게 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으나, 농산어촌에서 조선인만 거주하는 마을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각 마을에 신사를 설치하여 각 마을 주민에게 참배하게 하고 또한 마을에서 기존에 지내던 천신지기(天神地祇)에 대한 제사를 폐지하고 신사에 대해 제사를 지내도록 고침으로써 신앙을 하나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사를 건립할 때에는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 없이 존엄함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박하게 건립하면 좋을 것입니다.

2. 내선 결혼 장려

내선일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선인과 일본인이 친족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방법으로 조선에 거주하는 조선인과 일본인 관공리 및 그 밖의 유력자가 적합한 결혼 상대 혹은 양자로 인연을 맺을 상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권유하고 장려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3. 친족 상속의 성문화(成文化)와 내선 통일

민중의 인정과 풍속을 지배하는 법령은 친족 상속에 관한 규정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친족 상속법령의 차이와 유사성이 즉 관습과 풍속의 차이와 유사성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점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조선에서 이와 관련된 관습과 민법의 규정은 그 궤를 달리하는 것이 많아, 그 차이점을 전부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크게 지장이 없는 한 작은 차이점을 버리고 큰 유사점을 취해 가능한 한 동일 규정으로 조선인을 지배하고 조선의 관습을 시정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책일 것입니다.

(하략)

〈출전 : 李升雨 參議 『第19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8년〉

21) 참의 최지환(崔志煥)

(상략)

1. 면(面) 단위의 신사(神祠) 설치

현재의 정세에 비추어 내선일체의 정신을 구현할 방법으로, 먼저 조선인 국민에게 국체의 관념을 철저히 심화시키고 경신숭조(敬神崇祖) 정신을 함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사(神祠)를 중심으로 조선인과 일본인이 서로 제휴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호(守護)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재의 민심에 비추어 면·주재소·학교 등에서 수호를 담당하여 면 주민을 지도하고 존엄한 취지를 철저히 주지시켜야 합니다.

2. 일본어 보급 장려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중요한 요소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더구나 병합 이래 내선일체가 착실하게 진행되어 성과를 올리고 있는 오늘날, 이러한 중대한 요소를 결여하고 있는 자가 많이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내선일체는 정신상의 융화를 근본으로 하는 것으로, 조선인과 일본인 각 개인의 접촉을 통해 일본

정신의 진수를 느껴보아야 합니다. 각자의 접촉은 상호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를 위해 언어의 통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일반 조선인의 일본어 상용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외국의 정신문화를 연구하는 자라면 반드시 그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언어를 통해서 비로소 일부분이나마 그 나라의 정신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물며 자국의 정신을 알고자 한다면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따라서 국어¹³⁾ 상용은 내선일체를 위한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초등학교의 내선 공학

진정한 내선용화는 순진한 유소년 시절에 배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배우는 공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교학(敎學) 제도 개혁의 취지는 내선일체를 도모하는 방침인데 초등학교의 공학은 아직 미진한 감이 있습니다. 요컨대 이는 경영 방법의 통일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실현에 몇 가지 곤란한 점도 있기는 하지만, 현 비상시국하에서 어떠한 곤란이 있어도 이를 타개하여 진정한 내선일체의 구현에 매진할 당국의 영단을 바라는 바입니다. 일본어를 상용하는 자와 상용하지 않는 자가 초등학교에서 함께 배우는 것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 이어서 불가능하다고 보는 자도 있는데, 종래의 경험에 따르면 1학기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더라도 2학기에 접어들면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4. 내선 결혼 장려

내선일체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방책이 있지만 근본적 용화는 내선의 풍속과 관습의 융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결혼을 장려하여 일본의 문화에 동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를 통해 혈족으로 이어져 같은 국민으로서 결속을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될 것입니다.

5. 내선인 합동청년단 조직

국가의 중견인 청년들의 단결은 국운 융성의 중대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종래 조선에 청년단이 있어도 그 활동이 매우 미미한 상태로, 더구나 내선(內鮮)이 분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선일체의 성과를 거둘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13) 일본어를 뜻함.

내선일체의 청년단을 조직하여 현재의 후방을 지키도록 활약을 독려함은 물론, 나아가 장래 국가를 지키는 군인으로 성장할 마음가짐을 키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선 청년 모두가 하나 되어 국가의 초석을 더욱 단단히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후방 국민의 단결이 절실한 이때에 이 문제의 해결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하략)

〈출전 : 崔志煥 參議 『第19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8년〉

22) 참의 유진순(劉鎭淳)

(상략)

본 문제는 시정을 시작한 이래 역대 천황의 성지에 근거한 반도 통치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특히 현재 국가 총동원의 완성을 추구하는 오늘날, 내선일체의 정신을 조선과 일본 서로간에 더한층 깊이 이해하고 파악하도록 하여,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단결을 공고히 하고 황국신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일이 급무입니다. 그리고 그 방책으로서,

1. 국체관념의 명징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1군(郡) 1신사(神社)의 제도를 확립하여 지방 관민의 협력하에 신사로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제전(祭典)을 엄숙하고 성대하게 거행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각종 공적 회합은 신사를 중심으로 거행하여 국민적 신념을 배양하고 또 각종 대표와 학교 생도들로 하여금 이세 대묘(伊勢大廟) 등을 참배하게 하여 국체 관념을 명징하게 할 것.

2. 내선 결혼 장려

현재 내선 결혼의 가정 상황을 살펴보면, 부부간의 애정은 물론이요 일상생활과 아울러 그 밖의 실생활에서도 완전한 내선일체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결혼 장려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3. 내선 공학의 촉진

앞서 교육제도가 개혁되어 학교 명칭은 이미 개칭되었지만, 근본 방침인 내선 공학을 하루 빨리 실시하여 소학교 아동 시절부터 서로 친목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황국신민(皇國臣民)의 서사(誓詞) 철저

지방 공·사립학교의 생도들은 물론 유식 계급에서는 충분히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 하지만, 더 나아가 본문에 한글 번역을 붙여 무식 계급에도 철저히 보급해야 합니다.
(하락)

〈출전 : 劉鎮淳 參議 『第19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8년〉

23) 참의 이은우(李恩雨)

(상략)

장기 전시 태세하에서 거국일치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내선일체의 정신을 함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는 심적 결정(心的 結晶)인 이상 항구적이고 견실한 것이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언뜻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이해·파악·공찰(公察)·묵상(默想)하고 믿음에서 사랑으로 이행하여 각성에서 실천으로 진척된 후에는 누가 강력하게 이끌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하나가 되니 이상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인민의 자발성에 맡길 것이 아니라 통치자의 노력을 더욱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본 정신을 실현 및 구현하는 것은 결코 높고 멀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1. 국체명징(國體明徵)의 관념을 함양하여 신앙생활을 고취하기 위해 특히 신사 참배, 조상 제사를 의식(儀式)에 그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념을 갖도록 노력할 것.

2. 내선 결혼을 적극적으로 장려함과 동시에 호적법에 의한 서양자(婿養子) 제도를 속히 실시할 것.

3. 농산어촌민에게 일본어 보급을 도모할 것.

4. 총독부 주최로 해마다 대대적으로 중류 이하의 반도민에게 일본 시찰의 기회를 마련할 것. 그리고 본 건은 거액의 경비를 요하는 일이지만 효과도 그 못지않게 크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략)

〈출전 : 李恩雨 參議 『第19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8년〉

24) 참의 박희옥(朴禧沃)

(상략)

조선 교육제도의 개혁 및 지원병 제도의 실시는 미나미(南) 총독 각하의 영단에 의해 획기적으로 실시된 시책으로, 내선일체의 성과를 올리고 있음에 충심으로 감사해 마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책이 민심에게 미친 호감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을 앞으로도 많이 단행하여 명실상부하게 내선 무차별 동체(內鮮無差別同體)의 실현을 간절히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대저 내선일체는 신앙을 통일하여 정신적 귀일(歸一)을 도모함과 아울러 서로 밀접하게 교제하여 정이 넘치는 혈연으로 이어진 일가(一家)를 이루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면,

1. 신사(神社) 증설과 참배 장려

신앙의 귀일은 당연히 신사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가능한 한 신사를 증설함과 동시에 참배를 장려해야 합니다.

2. 내선 접촉의 긴밀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에게 조선인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여 우정을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접촉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 청년의 일본 농가 위탁 양성, 일본 취직 희망자에 대한 취직 알선 등 장기간에 걸친 일본 체류를 많이 장

려하여 도농에 널리 조선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지덕을 겸비한 일본인을 각지에 배치

조선 각지에 지덕을 겸비한 일본인을 각 계급에 널리 배치하여 영주(永住)하게 함으로써 내선 상호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내선일체의 정신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할 것.

조선의 현상을 보면 일본인 접촉의 기회가 극히 적어서 내선일체의 정신을 구현하는데 커다란 지장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인과 일본인의 생활을 한층 더 밀접하게 만들어 친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촌에는 농민, 어촌에는 어민, 상가에는 상인 등 지덕을 구비한 일본인을 그 마을에 거주하게 하여 기술 직업적 지도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생업보국(生業報國)을 도모함과 동시에 일본의 풍속과 예절 등을 일반 민중에게 주지시키고 습득시켜 상호간의 친화·협력·단결을 공고히 해 본 정신을 일상생활에 실천·구현하는 최적의 방책으로 삼아야 합니다.

4. 내선 결혼 및 양자 결연의 적극적 장려

내선일체의 영구화는 혈통적 결합이 최고의 이상일 것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출전 : 朴喜沃 參議 『第19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8년〉

25) 참의 최준집(崔準集)

(상략)

조선인과 일본인은 옛날부터 동계동족(同系同族)으로 추정되는 깊은 혈연관계에 있는데, 오랫동안 섬과 반도로 나뉘어 살았기 때문에 언어·풍속·습관 등에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이 두 민족으로 하여금 일본 국민으로서 완전히 같은 사상과 감정을 가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병합 당시부터 예의 신경 써 온 이래 일시동인의 성은을 입어 4반세기를 지나는 동안 역대 총독의 적절한 시정 방침으로 점진적으로 조선과 일본이 가깝게 접근하고 있는 바입니다. 만주사변을 계기로 반도 민중이 각성하여 내선일체의 정신이 싹뚫고,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약진적 대자각과 시대의 추진력에 동반하여 지금은 사

상과 감정상 일대 진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변에 감격한 반도 민중 사이에 마치 급물살과 같이 밀려오는 애국의 적성(赤誠)과 내선일체의 강화는, 시정을 전개한 이래의 일대 쾌거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 총동원하의 비상시국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어 거국일치 태세의 강화에 힘찬 추진력을 불러 오고 있습니다.

황공하게도 성상 폐하의 능위(稜威)와 충렬 무비(忠烈無比)한 황군 장병의 신명을 건 분투에 대해서는 마음으로부터 감격과 각성이 일어나는 데 반하여, 교활한 영국과 프랑스 등이 세계 인류의 공동의 적인 적화 공산주의 소련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여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에 대적하게 하는 것을 보면, 그 나라들이 표면적으로 중국 북부에서의 권의 옹호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백인종의 우월감으로 유색 인종을 모두 멸망시켜 동양 평화 아니 전 세계의 평화를 깨뜨리려는 마수를 뻗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내선일체를 이루어 황국신민의 일대 결의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조선인과 일본인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믿어 더욱 굳건히 단결함과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백인종의 주구(走狗)가 되어 용공(容共) 정책을 취하고 있는 장개석(蔣介石)의 정책과 군벌을 철저히 섬멸하고, 일본·만주·중국의 황인종이 대동단결하여 동양평화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외람되게도 성지를 받들고 미나미(南) 총독 각하의 대영단에 따라, 새롭게 조선인특별 지원병령의 실시·개정 조선교육령의 발포·황국신민의 서사 제정 그리고 국체명징(國體明徵)·선만일여(鮮滿一如)·교학진작(敎學振作)·농공병진(農工併進)·서정쇄신(庶政刷新)의 5대 정강 선언으로부터, 만방무비(萬邦無比), 만세일계(萬歲一系)인 국체정화(國體精華)의 명징과 숭신경조(崇神敬祖)의 본원인 신사(神社) 및 신사(神祠)의 봉안 확충·국어 보급 등은 분명히 반도인 관민의 마음에 닿았다는 점이 확실하며, 황국신민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항구적 국민 생활에 실현하는 데 가장 적절한 정책으로서 우리 총독의 면목약여(面目躍如)한 바입니다.

나아가 총독 각하의 영단을 필요로 하는 일은,

1. 지도 관공리의 최저 급여 제정

조선의 관공리 지도 계급의 생활 정도를 살펴보면, 서울과 지방을 통하여 일상 경제 생활 정도에 차이가 인정됨으로써 그 생활수준의 차이를 좁혀 균형 있게 하여서 비로소 내선일체의 정신이 강화되어 지식인 계급으로부터 일반 대중에게까지 흘러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 봉급자 고원(雇員) 급료 20원, 판임관(判任官) 대우자 35원 내외, 판

임관 40원을 지급해 지도 계급으로 세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리입니다. 특히 초임 판임관으로서 약 9할을 받고서 타지에서 노약자 합쳐 가족 평균 5, 6명을 부양하면서 교육비·위생비·피복비 등을 지출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최저생활비를 고원급(雇員級)은 일본인 타이피스트에 접근시켜 40원 정도로 하고 판임관 60원, 읍장 100원, 면장 50원, 읍 서기 45원, 면 서기 35원 정도로 한정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면 재정이 5,000원 내외인 곳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조선인 제2항 초등교육 확충 임시비를 현지에 부담시키고 있는 관계상 면 재정 증징 등은 곤란하므로, 면 행정 구획 정리를 대대적으로 단행하여 만 원 내외의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5, 6천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면의 상황을 살펴보면, 직원의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고단련(忍苦鍛鍊)의 차원을 넘어 과중한 분량의 업무가 복잡하기 그지없어, 업무의 지체와 오류 등 갖가지 폐해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면 행정 구획과 함께 조선인과 일본인 지도 계급의 생활수준의 차이를 좁혀 보건위생 사상을 진전시킨다면 내선일체의 정신 발로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2. 인재 발탁

조선인 지사와 국장급에 종종 대신급(大臣級)의 인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재를 보지 못하고 적재적소주의로써 균형을 지켜내지 못하면 조선인 '지식' 계층에서 내선일체 정신을 약화시킬 우려가 적지 않으므로, 내무부장에 참여관(參與官) 겸임과 아울러 일본인 산업부장의 전임(專任)이 불가능할 이유가 없으며, 지사 및 국장급 정원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고 시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의 적절한 인재를 검토하고 지사나 그 밖의 지위에는 상호융통성을 가지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부장에 조선인을 기용하지 않는 것은 내선일체 정신 실현 강화에 득이 될 것이 없는 시책으로, 그 실현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요망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하략)

〈출전 : 崔準集 參議 『第19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8년〉

11. 1940년 10월 24~25일, 제21회 중추원회의 참의 답신서

1) 참의 김한목(金漢睦)

1. 운동의 실황

황기(皇紀) 2600년의 빛나는 해를 맞이하여 반도 2,300만 창생 상하 모두 송고청순한 정념에 불타 감격이 더욱 새롭습니다. 특히 동아신질서 건설은 중국 중앙정부 성립과 함께 약진적 진전이 기대되지만 일면 성전이 계속되고 더욱이 작년의 대한해는 올해에도 그 영향이 미칠 것이므로 국민은 물심양면에서 자숙자계를 더욱 강화하여 인고지구(忍苦持久), 곤고결핍(困苦缺乏)을 견뎌내어 이완, 권태에 따른 침체를 경계하고 불퇴전의 용맹심과 확고불발의 각오로 다난한 시국을 극복하는 것은 본 운동이 지니는 사명임을 고려하여 지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1) 국민정신의 양양

① 건국정신의 양양

본 정신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월 애국일(흥아봉공일)의 행사에는 각 지도자가 이 정신의 진작, 함양에 노력함으로써 중국 대륙에서의 성전의 세계적 의의를 재인식시켜 건국정신의 양양을 밝히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② 내선일체 완성의 촉진

반도 민중의 진정한 행복은 내선일체의 구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항상 감사 감격하는 마음을 배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 궁성요배 운동의 보급
- 신사참배, 대마봉재(大麻奉齋)의 보급
- 국기의 존중과 게양
- 황국신민의 서사(誓詞) 보급
- 교육제도 개정 취지의 주지
- 지원병제도의 취지 주지와 지원의 권유
- 창씨제도 설정의 취지 주지
- 일본어 사용의 장려

(2) 애국반의 활동 촉진

본 운동은 국민의 총체적 훈련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관의 상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국가적 시설에서는 모든 분야에 걸쳐 협조해야 하는 것이 물론이지만 우선 다음 사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애국반원의 훈련
- 애국반장의 훈련
- 중견지도자의 훈련

(3) 생산확충

① 각종 산업의 증산계획

산업 부문에 걸쳐 각각 확충과 증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각지에서 협의회, 강연회, 좌담회 등을 개최하고 일반에게 주지시켜 총동원으로 생산보국에 매진하게 합니다.

② 인적 자원의 개발

총동원 태세를 정비하여 잉여 노동력을 외지로 보내고 지역 내의 각종 산업 및 한해 대책사업에는 애국반을 총동원시킵니다.

③ 전시 생활의 철저

성전은 계속되므로 국민은 이에 대한 강한 의식 아래 각자 생활을 제1선 황군(皇軍) 장병과 곤고를 같이한다는 각오로 경제통제에 순응하여 쓸데없는 것을 줄이고 간소한 생활을 위해 다음 사항을 강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물질 절약, 특히 일상 생활품 중 철제품, 면제품, 석유 성냥, 소금, 소다, 사탕, 피혁, 고무신 등을 극도로 절약합니다.
- 면화의 자가소비 절약
- 생활양식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철저한 시간과 물자의 절약을 위해 애국반을 총동원하여 노력합니다.
- 대용품의 사용
고무신의 대용으로 자가제조 나막신, 짚신
석유 대용으로 실유(實油)
소다, 비누의 대용으로 초목의 재

성냥의 대응으로 부싯돌, 불씨 보존
못의 대응으로 대나무못, 나무못
낚시그릇의 대응으로 도기, 목기
여자모발용 아주까리기름의 사용 폐지

④ 가뭄 피해 준공의 극복

작년의 가뭄 피해 여파는 올해 준공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작년 가을 대응식으로 초근목피, 도토리 등을 채취해 두었습니다.

⑤ 절미운동

영세민계급에서는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류 이상 계급일지라도 백미식을 근절할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이를 장려하여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2. 향후의 강화철폐책

(1) 총동원 태세의 강화

본 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유종의 미를 얻기 위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이 먼저 총동원 태세의 강화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농산촌에서는 상당히 철저하지만 도시는 대중소를 불문하고 철저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유식자, 유산자 계급은 특히 이를 싫어하는 것이 농후합니다. 시국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이완과 태만이 염려됩니다. 우선 유산자, 유식자 계급에게 본 운동의 취지를 침투시키고 일반 대중에게 끊임없는 노력으로 철저히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지도자의 증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중에 대한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전담 지도자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지도자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3) 실천 요목의 철저

조선연맹에서 선정한 21항의 실천요목은 모두 소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항목이 많아 오히려 철저함이 결여될 우려가 있습니다. 단순화하여 연차계획으로

점차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하략)

〈출전 : 金漢陸 參議 『第21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0년〉

2) 참의 김관현(金光副臣, 가네미쓰 후쿠신)

1. 향후의 강화철저책

(1) 연맹 조직과 활동의 강화 철저

1938년 7월 사변 1주년을 계기로 경성에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조직하고 지방에는 지방연맹, 각종 연맹 및 애국반을 결성한 것을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연맹과 애국반 중에는 형식에 흘러 자칫하면 본 운동의 참뜻을 거스르는 것도 있어 유감입니다. 이들 연맹의 조직을 철저히 강화하여 연맹 결성의 목적 관철에 유감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시국 인식의 철저

시국 인식에 대해서는 종래에도 상당히 노력해 왔지만 시국이 항구화함에 따라 점차 시국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시국이 항구화함에 따라 더욱 시국을 올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을에 세간에는 때때로 시국을 인식하지 못하고 방탕한 모습이 있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순회강연, 영사회 등을 개최하여 시국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회 풍조의 갱신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사회 풍조의 경장(更張)을 기조로 삼아야 합니다. 사회 풍조의 경장을 도모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중요합니다.

① 궁성요배

우리나라는 황실을 중심으로 성립한 나라로서 모두 황실중심주의로 나아갈 필요가 있

음은 여러 말이 필요 없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공성을 요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② 경신숭조 관념의 계발 배양

- 각 가정은 물론 관공서, 공장, 은행, 회사 등에는 대마를 봉사(奉祀)하게 하여 아침 저녁으로 봉배시킬 것
- 신사(神社)·신사(神祠)에 대해서는 항상 경건한 태도를 지닐 것

③ 애국일의 철저한 실시

애국일 창설 당초에는 성적이 좋았지만 시일이 흐를수록 점차 이완되는 것 같으므로 애국일에는 다음 각 항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사(神社)·신사(神祠) 참배
- 금주, 금연
- 요리점, 카페, 다방, 백화점 등의 휴업
- 근로봉사

④ 근로봉사

출정 장병의 노고를 숭상하여 봉사하는 것은 감사의 한 방법으로서 애국일 이외에 수시로 근로봉사를 하고 노역은 되도록 도로 공사 등 공공적, 국가적 공사로 합니다.

⑤ 상점의 영업시간 단축

각 상점의 영업시간은 되도록 오후 10시까지로 합니다.

(4) 생활개선의 철저

① 복장의 간소화

복장은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므로 사치를 없애고 소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복이나 기타의 경우 색깔이 들어간 복장의 착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금주, 금연의 철저

전차, 승합차, 기차 등 혼잡한 장소는 물론 기타 장소에서도 가능한 한 금주 금연을 하도록 합니다.

③ 저축의 장려

학교, 관청, 은행, 회사, 공장 등에서는 일정한 날에 강제적으로 저축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5) 내선일체의 촉진

① 일본어, 일문의 사용 장려

② 창씨의 보급

창씨자에 대해서는 유언비어를 제거하고 되도록 우대방법을 강구하여 창씨의 보급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내선 통혼의 장려

내선 결혼자에 대해서는 내선결혼장려규정과 같은 것을 만들어 장려금을 교부하고 기타 우대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징병령의 실시

지원병제도의 실시로 조선인 자제의 황국신민으로서의 우수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음은 참으로 경하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조선인으로서 그 자제가 지원병으로 채용되는 심정은 일본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현상입니다. 조선 2천 300만 동포의 몸과 마음 모두를 완전히 일본인화하는 방법은 조속히 지원병제도를 바꾸어 징병령을 실시하는 것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략)

〈출전 : 金光副臣 參議 『第21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0년〉

3) 참의 김진수(金松晋洙, 가나마쓰 신슈)

1. 운동의 실황

1938년 7월 7일 중일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관민일치의 총의로 조선연맹이 탄생된 이래 잇달아 전 조선의 각 도연맹, 군연맹, 면연맹, 리연맹, 부락연맹, 기타 각종 연맹이 결

성되어 같은 해 중에 물샐 틈 없는 연맹망의 완성을 보았습니다. 이후 각 연맹 임원의 열렬한 지도에 의해 본 운동도 착착 그 실적을 거두었는데, 정동(精動)연맹의 기저조직 이면서 또 실행단체인 애국반은 각각 그 소속 반장을 중심으로 총친화, 총노력 연맹의 실천요목에 따라 모두 일상생활에 실천하여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 실황을 약술하면,

- ① 매월 애국일(홍아봉공일) 또는 축제일, 기타 애국 반원의 궁성요배, 황군(皇軍) 무운 장구 기원,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 근로봉사 작업 등의 실시
- ② 대마봉재
- ③ 자숙자계와 조기 기상의 장려, 근로시간의 연장, 소비 절약, 혼식 대용식의 실행
- ④ 보국저금의 장려
- ⑤ 폐품 회수의 실행
- ⑥ 토목공사장, 기타 사업장 등에서 실시하는 근로보국 작업을 통해 얻은 임금은 국방헌금 혹은 황군위문금으로 증정

2. 향후의 강화철저책

(1)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신규방침의 철저

올해 3월 14일 조선연맹으로부터 통첩받은 1940년도 국민정신총동원운동 방침에 의거하여 관민이 협력하여 국민 총훈련의 축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특히 인적 자질의 향상과 지도기구 조직의 충실을 도모하여 본 운동의 신규방침을 철두철미하게 일반 민중에게 주지, 실행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략)

〈출전 : 金松晋洙 參議 『第21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0년〉

4) 참의 이기찬(李基燦)

1. 운동의 실황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실황은 관의 열성적인 지도와 관계 임원의 활동에 의해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도시는 농산어촌과 비교해 철저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 뿐 아니라 조선인 중에는 아직 황국신민이라는 신념에 철저하지 못해 지성봉공의 기백이 부족한 자가

있는 듯합니다.

2. 향후의 강화철폐책

(1) 내선 동종동근의 천명 철저

일본인과 조선인은 유사 이전의 유적, 유물 등, 또 신체 구조, 언어 조직 등을 살펴볼 때 완전히 동근동종이라는 것을 권위 있는 학자들이 증명하는 바입니다. 국민정신총동원연맹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에 관한 여러 학설을 모아 단행본을 발행하고, 또 널리 강연을 실시하여 조선인과 일본인이 서로 다른 민족이라는 견해의 잘못을 밝혀 친애의 마음을 두텁게 하고 상호 제휴하여 황운(皇運)을 부익하는 길에 매진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내선 차별대우의 철폐

각 사회계층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차별대우는 내선일체의 완성을 저해하는 유일한 원인입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일본인에게는 우월감을 주고 조선인에게는 불평심을 심어주면 상호간의 융화는 저해됩니다. 똑같이 조선에서 태어나 조선에 거주하고, 같은 학교를 동시에 졸업하고 같은 회사에 취직하여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더구나 성적이 우수한 자라 하더라도 조선에 본적이 있는 한 일본인에 비해 현저히 소액의 봉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조선식산은행만은 예외). 더구나 물가가 비싼 지금은 낮은 봉급생활자가 아무리 절약하더라도 일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요컨대 조선인에게도 수당 등을 주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이 충분해야 예절을 압니다. 의식이 궁핍한 자에게 정신의 동원을 요구하는 것은 산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① 생활필수품의 가격공정 실시

물품에 대해 가격을 공정하게 하더라도 암거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없는 물건이 없는 암거래를 한다면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배급을 실시하여 거래의 공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소비 절약과 저축 장려

봉급생활자와 같이 생활에 위협을 받는 자가 있는 반면 나날이 폭리를 취하여 금전의

처치에 어려움을 느끼는 자가 아주 많고 유흥에 빠지는 자, 또는 과분히 사치하는 자가 사변 이전에 비교해 현저히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애국저금을 강제하고 소비를 절약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략)

〈출전 : 李基燦 參議 『第21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0년〉

5) 참의 방의석(方義錫)

1. 운동의 실황

국민정신총동원연맹 결성 이후 각종 세포연맹을 조직하여 연맹의 강령과 실천요목에 의거하여 시국의 인식과 일본 정신 양양, 국가총력의 발휘에 대한 각종 사업의 실시 결과 도시나 시골에서 그 성적의 현저함을 보기에 이른 것은 몹시 기뻐할 만한 현상입니다. 각 관공서, 은행 회사, 공공단체 등에서의 연맹 활동 상황은 대체로 통제되어 성적이 양호합니다. 하지만 일반 부락연맹과 애국반에서는 지도자의 일손 부족, 중심인물의 결여 등에 의해 활동이 둔화되어 격화소양의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의 강화, 철저를 도모하기 위해 궁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2. 향후의 강화철저책

(1) 황국신민의 긍지와 시국 인식의 철저

본 운동의 강화, 철저를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 취할 방책으로 지방 농산어촌 부락민에 대해 단순히 실천요목을 실행하는 것은 자칫하면 형식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요는 천백의 실천요목을 실행하는 것보다 이에 앞서 근본적으로 동아의 맹주인 대일본제국의 국제관념을 파악하여 황국신민이라는 긍지를 자각시키고 거국일치하여 국가총력의 발휘를 필요로 하는 시국 인식을 철저히 인식시킴으로써 오히려 자발적으로 연맹의 실천요목을 실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긴요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사항의 실시가 요망됩니다.

① 부(府)·군(郡)에 전임지도자의 배치

현재의 직원이 연맹 관계의 사무 처리와 읍·면연맹, 부락연맹, 각종 연맹을 지도하지만, 연일 격증하는 일반사무에 시달려 충분히 지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임지도원을 배치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읍·면에 지도원 배치

읍·면에 지도원을 배치하여 2개 면 내지 3개 면을 책임지도구역으로 담당시켜 부락연맹원을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중심인물의 양성

부락연맹과 애국반의 중견인물이 될 자를 양성하여 시범자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④ 좌담회의 개최

앞에 기재한 국체관념의 파악, 황국신민이라는 자각과 시국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실제 방법으로 종래 실행해 온 좌담회를 더욱 빈번히 개최하고, 구역을 소범위로 한정하여 개최합니다. 이때에는 각 지도자와 경찰관, 주재소 수석을 중심주체로 삼아 아주 쉽고 진정한 좌담회를 잡담하듯이 만들어 참석자로 하여금 되도록 많이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략)

〈출전 : 方義錫 參議 『第21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0년〉

6) 참의 장직상(張稷相)

1. 운동의 실황

본 건은 비상시국인 현재 국민 전체에게 요구되는 중대 문제인 동시에 이의 실천에는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소관(小官)도 평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민중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지만, 아직 민중의 자각이 만족할 정도의 영역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지방 농산어촌의 첨단에 서는 면직원과 같은 자

도 재직 중에는 국민복에 각반 복장으로 일견 수궁할 수 있지만, 사직하여 일반 민중의 한 사람이 되면 종래의 백의를 걸치고 조금도 긴장하지 않는 태도를 많이 보입니다. 지도적인 입장에 있던 자가 그렇다면 일반 민중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필경 정동의 취지에 대한 불철저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2. 향후 강화철저책

(1) 상층계급의 적극적 수범(垂範)

현재는 논의의 시대를 지나 상층계급층이 민중에게 어떻게 모범을 보이는가의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도의 본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고관 여러분부터, 나아가서는 제1선 면직원에 이르기까지 일반 민중에게 국난에 처한 진지한 태도를 지녀야 함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들 지도계급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자각하고 묵묵히 실천궁행하여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2) 정(町)연맹, 부락연맹 등의 기능 확충과 시국 인식의 철저

도시에서는 정연맹, 산촌에서는 부락연맹의 기능을 확충시켜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기능의 확충, 강화는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우리 대일본제국이 세계에서 처한 입장과 이번 사변의 목적 등을 더욱 심각하게 민중에게 인식시켜 완벽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촌락연맹에 자치적 제재규정의 창설

정연맹, 촌락연맹 등에 적당한 규약을 만들어 만일 그 토지에 재주(在住)하는 민중으로서 규약을 중시하지 않고 정동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일부러 일삼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정 또는 촌락의 사회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가령 그 자가 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는 이들 연맹이 발행하는 신용장을 휴대시키는 등의 제도를 만들어 정이나 촌락에 한 사람의 위반자가 없을 때까지 철저히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지도단체의 통일 정리

오늘날과 같이 지도단체가 많은 것은 상당히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군사후원회,

방호단, 애국부인회, 국방부인회 등 운동 취지가 거의 비슷한 동종동양의 단체가 많기 때문에 지식 정도가 낮은 민중은 그 취지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적 자원이 부족한 지금 중일 각종 집회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스스로 통제를 어지럽힐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단체 사정이 허락하는 한 정리하여 일괄한 다음 각 부문별로 필요에 따라 담당자의 배치 등 무언가 적당한 개선이 긴요하게 필요합니다.

요컨대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상부로부터의 중압을 가능한 한 피해 민중 각자가 큰 자각과 신념 아래 진정으로 국가를 생각하는 자발적 숙청에 의해 행동을 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중의 자치적 제재를 기조로 하기 때문에 만약 재주자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종래 그 자의 경력과 소행을 기록한 일종의 신용장을 휴대시킨다면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실적을 한층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중략)

자문 이외의 희망사항

1. 일본인의 원적을 조선으로, 반도인의 원적을 일본으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제도를 제정했으면 합니다.

[이유]

작년 미나미(南) 총독 각하께서 조선에 취임하시자 그 첫마디로 내선일체를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사변을 계기로 내선일체의 관념을 조장하여 농후하게 만들기 위해 단순한 정신적 방면에 그치지 않고 산업이나 경제에 총후국민으로서 각자 능력에 따라 봉공하는 정성을 바치고 있음은 경하할 일입니다. 특히 재작년 지원병제도가 신설되고 나아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씨가 창정된 것은 총독정치의 일대 비약으로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생각건대 이번 기회에 한 발 나아가 내선일체의 실행으로 조선에 재주하는 일본인일지라도 원적을 조선으로 이전할 수 있음과 동시에 한편으로 일본에 재주하는 반도인에게도 일본으로 원적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소관이 감히 이러한 의견을 개진하는 까닭은 원래 원적 그 자체의 근본 취지는 재주하는 곳, 즉 생활상 영구적 근거인 토지로 옮겨야 한다는 것으로, 이미 일본인이 반도에

혹은 반도인이 일본에 거주하는 자 가운데에는 제2세와 제3세를 거친 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여전히 각자 본래의 원적을 이탈할 수 없음은 가령 어떠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언뜻 보기에 임시적이며 마치 별이하러 갔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아는 일본인 중에도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많습니다. 원래 당연한 귀결로서 이렇게 해야 명실공이 진정한 내선일체의 구현일 뿐 아니라, 멀리 스이닌(垂仁) 천황 시절부터 우리들 조상은 일본인으로서 황실의 성을 받았다는 사실(史實)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후 세월이 흘러 1900여 년간 반도의 흥망성쇠의 자취를 그리워하며 감개무량합니다. 특히 지금 비상시국에 직면하여 성전 4년간 반도 인민도 동일하게 일본인의 준마 꼬리에 붙어 국민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지론으로 본 회의마다 피력해 왔습니다. 이런 주장이 달성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2. 조선의 묘지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일본인 묘지를 사원 경내에 설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

본 건은 전 항의 요망사항과 관련됩니다. 내선일체의 내실을 구현하는 데에 가장 긴요한 일에 속합니다. 그런데 병합된 지 이미 30년이 경과된 지금 여전히 많은 일본인은 유골을 자기 고향으로 가져가는 실상입니다. 이는 같은 나라 안의 우리 반도를 묘지로 정하지 않고 일종의 거쳐 가는 곳이라고 계속 생각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입니다. 이런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현행 법규에는 사원 경내 혹은 타인의 임의 침입을 허용하지 않는 장소에 매장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한 사례로 작년 대구부 조동종 대휴사(大休寺)의 단도(壇徒)가 사원 경내 구석의 빈터를 정리하여 묘지 대용의 허가를 받으려 했지만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중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일본인에게 반도를 묘지로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중대문제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산 사람은 원적을 함께 하고 죽은 사람은 그 유골을 같은 땅에 매장함으로써 비로소 명실공이 내선일체가 실현된다고 믿어서 감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출전 : 張稷相 參議 『第21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0년〉

7) 참의 박상준(朴澤相駿, 호자와 소순)

1. 운동의 실황

정동 개시 이후 각 연맹과 애국반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하여 지도한 결과 성적이 아주 양호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군연맹에서는 매월 1회 면연맹 간부를 군연맹 소재지에, 또 면연맹에서는 각 애국반장을 면연맹 소재지에 (회의장은 대개 학교의 교사를 이용함) 소집하여 운동의 실적을 검토하고, 운동의 유효 적절한 방책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또 각 애국반이 매월 1일 애국일(홍아봉공일)에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서 실제로 황국신민임을 자각시켜 충군애국의 정신을 함양하고 실천 필행의 좋은 습관을 더욱 조장한 바 이것이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효과가 적지 않습니다. 가장 현저한 것을 들면,

- ① 황실에 대한 충성과 보은의 마음
- ② 황군의 분투에 대한 감격
- ③ 가뭄 피해 구제에 대한 감사
- ④ 단체생활의 의식
- ⑤ 시국 인식
- ⑥ 단기 강습을 실시하는 등 지식욕의 증진
- ⑦ 근로봉사
- ⑧ 저축, 폐품 회수의 실행
- ⑨ 신사참배자와 지원병 지원자의 증가
- ⑩ 내선일체 관념의 농후
- ⑪ 청년단의 활약

등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도기구에는 다소 인력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2. 향후의 강화철저책

(1) 정동의 영구화와 신념의 철저화

정동을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고 그 기구를 더욱 강화하여 견고한 신념을 민중에게 철저히 심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총력 발휘는 단순히 일중전쟁 처리만이 아니라 동아신질서의 건설 내지 세계평화 실현에 대한 황국의 사명 수행이라는 원대한 목적을 지닌 것입니다. 이를 영구적 운동

으로서 적극적으로 매진시켜야 합니다.

(2) 지도계급인 관공리의 대우 개선

현재의 물가고에서 관공리의 대우는 결코 고려밖에 둘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도계급의 생활 불안정이 심각합니다. 의식이 충분해야 영욕을 안다는 선인의 격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경제와 도의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원칙이니 적어도 그 생활을 안정시켜 민중을 지도하는 데 발랄 호연한 기력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합니다.

(3) 정동 관계 지방관공리의 임면방법 개선

현재 면직원의 평균연령은 너무 젊고 관공리의 용퇴 연령은 너무 빠릅니다. 연령 등을 참작하여 지금 어느 정도 그 지위에서 일반을 지도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4) 애국반장인 중심인물의 양성

현재 일반 애국반의 실적을 살펴보면, 대체로 종래의 부락지도자 경험이 있는 이른바 중심인물이 반장인 반은 성적이 양호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자발적으로 민중 지도에 나설 수 있는 중심인물 양성이 급선무임을 통감합니다.

(5) 정동 관계자의 회합

정동 관계자의 회합은 '군연맹의 읍·면연맹 간부 소집은 매월 1회 이상, 읍·면연맹의 애국반장의 소집은 매월 2회 이상, 애국반장의 반원소집은 매월 1회' 정시에 필히 소집되어야 합니다. 현재 각 군·면연맹의 애국반 지도 상황을 보면, 매월 1회 월례회를 개최하여 실지 지도에 노력하는 지방은 비교적 계몽 효과가 큼니다. 또 다른 단체를 보아도 마찬가지로 단원의 집합 횟수가 많을수록 효과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정동 관계자의 회합 횟수를 증가시키고 일시를 정하여 좌담회 혹은 강연회 등을 통해 강화, 철저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조·중식의 음주 폐지

조식과 중식의 음주는 건강상에도 일의 능률상에도 악영향이 많습니다. 현주 폐지와 더불어 조식과 중식의 음주 폐지도 장려해야 합니다.

(7) 부인단체의 설치

소비 절약과 생활개선의 실행상 추진력이 가장 큰 사람은 부인입니다. 이들을 잘 지도하고 단결시켜 운동에 협력시킬 필요가 있음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농촌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오늘날 부인의 옥외활동은 더욱 필요합니다.

(8) 농진(農振)운동의 애국반 통일

애국반이 있는 농촌부락에는 농진운동을 애국반의 한 실행항목으로서 이를 통일하고 물심양면의 실천운동을 강화하여 물자에 대한 감사와 보호증산의 마음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확충과 자원애호를 절실하게 느끼는 오늘날, 여전히 산불이 빈발하고 우량가축농가의 가축수가 감소하는 경향은 실로 우려할 점입니다. 또 산불은 목재의 손실만이 아니라 퇴비 원료까지 소실되어 자급비료 제조의 곤란을 초래합니다. 일반 민중에게 사상과 경제전사(經濟戰士)라는 자각을 주어 애립 및 애축의 관념을 보급시켜 물자의 보호와 증식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9) 중심인물의 양성

정동의 가장 효과적인 강화철저책은 그 기구의 개혁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각 연맹의 간부부터 애국반장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얻어 운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중심인물을 양성하여 배치해야 합니다.

(중략)

〈출전 : 朴澤相駿 參議 『第21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0년〉

8) 참의 김명준(金田明, 가네다 아키라)

1. 운동의 실황

1938년 7월 7일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창립되고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기구의 정비와 더불어 각종 기획 또한 아주 적절하였기 때문에 현지에서의 시설, 조치는 지금 시국에 적응되지 않은 것이 없고 중앙과 지방부락을 통해 큰 성적을 올

리고 있습니다.

소관이 작년 1939년 가을 명을 받고 평안남도 일대에 순회강연을 실시했을 때 각지의 부락실전대, 즉 애국반은 본 연맹이 제정한 각 항목에 따라 착착 실적을 올리는 것을 보고 충심으로 흔쾌해 마지않았습니다.

본 운동 현재의 실황에 대해 비방과 칭찬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지만 그것은 대개 조직이 날로 이완되어 전도가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본 운동이 앞으로 노력해야 할 점입니다. 요컨대 과거 2년간 배양된 본 운동은 지금 반도의 각 부문과 각 계층에 굳게 뿌리를 내려 다음 단계 진전에 대비하는 대기적 태세에 도달한 것은 왜곡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라 믿습니다.

2. 향후의 강화철저책

본 항에 대해서는 동 동맹이 1940년도에 전개할 운동의 기본방침을 정하고, 이에 바탕을 둔 8대사업계획 수십 개의 세목에 걸친 실행안을 작성하여 이미 착착 진행하고 있으므로 신규로 특별한 대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실행에 관하여 특히 주의할 점을 몇 건 말하겠습니다.

(1) 애국반 및 추진대의 확장 강화

제가 작년 평안남도를 순회강연하면서 각지 각 부락에서 목격한 것에 따르면, 애국반의 활동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즉 반원은 모두 본 운동의 정신과 제반 제정사항을 잘 이해, 섭취하여 부민들에게 아는 것의 철저함과 실천의 지구성을 가지도록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시 추진대는 아직 조직 중이어서 활동상을 볼 수 없었지만, 요컨대 이 두 개의 기구는 본 운동의 최전선인 실전부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활동력의 강약 여하가 실로 본 운동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운동이 향후 취할 대책은 많겠지만, 두 기구의 내용을 확충시켜 그 활동력을 왕성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긴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다음 3항목을 말하고자 합니다.

① 각 부(府)·군(郡)에 전임직원 증치

이번 각 부군에 새로이 속(屬) 1명, 고(雇) 1명을 증치하여 본 운동을 전담시킨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믿지만, 기회를 봐서 인원을 증가시키고 특히 애국반, 추진대를 지도시

키는 것입니다.

② 읍·면에 전임직원의 배치

읍·면에도 이와 유사한 전담 인원을 배치하여 위에 기재한 부·군의 기구와 서로 협조하여 전선(前線)부대를 응원하는 것입니다.

③ 애국반 및 추진대에서의 지도방책각 애국반, 추진대의 지도방책으로는 훈련, 감독, 좌담, 강연, 주의, 현장지도 등 많이 있지만 각지의 실상에 맞추어 자유롭게 재량권을 주어 본 운동의 사명 달성에 매진시키는 것입니다.

요컨대 기구가 아무리 정비되고 세목이 완비되어도 본 운동의 궁극적인 성패는 중앙과 지방 내지 군부(郡部)에 종사하는 투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앞의 항에서 전선부대원의 지도 장려의 중요함을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번 지방 순회강연을 통해 어느 지방에서 소속 군이 다른 갑과 을 두 면에 대해 그 실적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양자의 성적이 너무나도 우열이 커서 놀랐습니다. 그 이유를 조사해보니 갑 면에서는 그 군부의 지도가 열성적이고 다른 관공서와의 연락,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반해 성적이 떨어진 을 면에서는 지도 군부와는 다른 조직과의 협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 지도 또한 평범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패의 미묘한 사정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본 운동의 장래 방책으로서 기구 강목 등의 연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도자의 열성과 지도관공서 상호의 긴밀한 연락 여하가 얼마나 긴요한지 통감했습니다.

(하략)

〈출전 : 金田明 參議 『第21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0년〉

9) 참의 홍치업(南陽致業)

1. 운동의 실황

1938년 7월 본 운동 개시 이후 각지 모두 도·군·읍·면·동에 연맹을 설치하고, 각 부락에는 애국반을 설치하여 정동운동의 계통을 만들고, 연맹총회, 임원회, 홍아봉공일

등의 종합지도는 물론 개별적인 심적 물적 양 방면에 걸쳐 진정한 거국일치, 내선일체의 대이상의 구현에 힘쓰며 동아신질서 건설의 성업 촉진에 한마음으로 분투하는 정세가 역력합니다.

특히 정동운동의 9개 강령과 21개 실천요목과 같이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전반에 걸쳐 보급되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2. 향후의 강화철저책

(1) 실천요목의 간소화와 애국반원 연중행사의 영달(令達)

현행 연맹 9개 강령과 21개 실천요목은 모두 정동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지만, 지방 농산어촌의 낮은 민도를 고려하면 번거롭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므로 앞의 실천요목 가운데 적절히 취사선택하여 보편적으로 알기 쉽고 간단한 정도, 즉 간소화를 도모하여 무학의 민초에 이르기까지 문장을 통하지 않고 구두로 듣고 곧바로 알 수 있도록 소위 약부호와 같은 요목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염두에 두고 항상 알 수 있는 정도의 연중행사표를 만들어 각 애국반원에게 배포하여 지도원의 손에서 떨어져도 실행 용이한 방법을 채택할 경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2) 계몽시설의 철저

모든 시설에 대한 이해력이 첫째로 실행자의 지능에 달려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계몽하기 위해 종래 군, 읍, 면의 지도를 통해 각 부락에 야학회 혹은 강습회를 개최했지만, 또 한편으로 경비염출의 어려움이 많아 널리 계몽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이후 국비 또는 도비로 강사의 수당과 경비를 부담하고 농한기를 이용해 부락, 즉 애국반을 단위로 하는 야학회와 같은 것을 2년간 계속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또 교과서도 국정교과서를 편찬하여 수강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한다는 법칙을 정했으면 합니다. 국민 모두가 배우는 이상을 구현하는 때에는 부지불식간에 정동운동의 철저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지도망의 충실

정신총동원운동과 기타 시국관계 지도망은 본부와 도까지는 대체로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제1선 지도기관인 군부(郡部)에는 아무런 계통이 서있지 않아 기존의

인원으로 처리하고 있어 일손 부족이 참으로 절실합니다. 당국의 영단으로 각 군에 사회주사와 같은 오로지 정동운동에만 종사하는 인적 기구를 정비하여 항상 담당구역을 정례적으로 순회하고 실지 지도에 전념시키면 그 효과가 크고, 이것이 촉진시키는 방법의 첩경이라 생각합니다.

(4) 비국민적 행위에 대한 제재

지방의 실정에 따라 그 계급이 모두 하나는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지방에는 ① 사물을 알고 행하지 않는 자, ② 사물을 알지 못하고 행하지 않는 자라는 두 계급이 있습니다. 현재 정동운동은 물론 모든 행정에 해를 가져온 사례는 한둘이 아닙니다. 거국일치 체제를 강조하는 이때에, 앞의 ①에 해당하는 비국민적 행위자의 응징은 결코 쓸데없는 일이 아니며 나아가 일반 지도상 커다란 충동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예를 들면 ① 애국일(동아봉공일)에 고의로 불참하는 자, ② 저축, 기타 일반적 시책에 응하지 않는 자들을 단호히 관의 힘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직권을 부여할 경우 모든 시책은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하략)

〈출전 : 南陽致業 參議, 『第21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0년〉

10) 참의 서병조(徐丙朝)

1. 향후의 강화철저책

(1) 건국정신의 앙양 천명

황국일본의 건국 대정신을 국민의 마음 속에 투철하게 하고 반도 민중 모두가 황국신민이라는 신념으로 불태우기 위해서는 알기 쉽고 명료한 책자, 서적 등을 간행해야 합니다. 특히 조선어로 평이한 읽을거리를 간행하여 민중에게 보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례를 들면 『국체의 본의』와 같은 조선어판을 간행하는 것입니다.

(2) 생활개선위원회의 설치

중앙과 각 도연맹에 각 방면의 중요 조선인과 일본인을 중심으로 생활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제에 맞는 생활개선의 연구 조사를 수행하여 연맹의 운동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위원회가 생활개선의 입안을 연맹에 회부하고, 연맹은 이를 채택하여 부(府)·군·읍연맹에 지시 실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3) 운동 능력의 증진

① 각종 단체에서의 애국반 지도

연맹 창립이 2개년에 가까웠지만 기구의 크기에 비해 실적이 오르지 않아 유감입니다. 민중 총동원의 마음자세는 있지만 실지 활동의 지도자가 없다면 그러한 열성도 쉽게 식기 때문에 적당한 애국반 지도자를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 회사, 금융조합, 무진회사원, 종교단체의 목사나 전도사 등은 민중과 접촉할 기회가 항상 많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정신 작흥, 저축 장려, 생활 개선, 기타 제반 사항에 걸쳐 애국반을 지도시키는 것이 아주 좋을 것입니다.

② 학교 교원의 애국반 지도

전 항 이외에 중·초등학교의 교원을 애국반의 지도자로 삼는 것도 아주 유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원은 명실공이 지도자로서 적합하고 상당한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한편 교원도 실제 사회를 배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③ 연맹 임원 협의회, 강습회 개최

각 도연맹 사무 담당자 협의회 및 지방연맹 관계자 강습회, 각 도별 지도자 협의회, 부(府)·군(郡)·도(島) 이상 연맹 이사장대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운동 효율의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긴밀한 연락과 전달을 도모합니다. 종래 이러한 종류의 회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절로 연맹의 활동이 둔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합은 관계자 지도자 등의 격려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④ 경방단(警防團), 부인단체, 청년단, 소년단과의 연락 강화

경방단, 부인단체, 청년단, 소년단 등은 각자 독립된 단체이지만 총동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맹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일제히 활동하도록 연락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4) 포상시설

우수한 애국반, 기타 특히 본 운동에 공로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적당히 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선에서의 병사도, 총후에서의 국민도, 정성을 다하는 방법과 장소는 달라도 그 심정은 동일합니다. 이를 몇몇 위계를 표준으로 포상하여 국은을 받는다는 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더욱 본 운동에 진력시킬 것이므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통제경제의 철저

물자 결핍으로 인해 물가등귀가 초래되었습니다.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통제경제에 진력하고 있지만, 이른바 공정가격에 다소 무리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더욱이 국민 중에도 가끔 이기적인 행위를 일삼는 자가 있습니다. 매점매석과 암거래가 횡행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이는 국민총동원운동을 저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들 비국민적 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본 운동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근본 사항이니 더욱 엄중히 단속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준비를 정비해야 합니다. 즉 만전의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한 통제경제를 확립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는 총후봉공의 정신을, 소극적으로는 준법정신을 함양, 진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준법정신에 대해서 부언하면, 민사소송과 같은 것도 악랄한 답합 수단으로 선량한 국민을 함정에 빠뜨리는 나쁜 분자가 있습니다. 준법정신의 진작은 결국 국제명정의 문제로서 '국헌을 중시하고 국법을 존중하여'라고 분부하신 칙어의 성지를 받들지 않고 그 누가 본 운동을 실행할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정부 당국은 자주민정을 상세히 살펴 구체적 대책을 수립하고, 더욱 엄중한 단속을 통해 통제경제를 확립하여 국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략)

〈출전 : 徐丙朝 參議 『第21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0년〉

11) 참의 손재하(廣原平成)

1. 운동의 실황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실시 이후 착착 그 실적을 거두어 매우 효과가 큽니다. 동아신 질서 건설의 대업을 수행하는 데에 참으로 경하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본 운동은 본질상 국민적 총 노력의 일대운동이기 때문에 관민, 상하, 귀천을 불문하고 일치 협력을 통해 실효를 거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방에서의 실황은 관공서의 구호로 일반 민중은 형식적으로 이에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연맹의 조직 및 기구의 불비와 지방농촌 민중의 몽매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므로 이에 다음의 방책을 통해 본 운동의 강화, 철저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향후의 강화철저책

(1) 농촌 각종 단체의 연맹으로의 통합

현재 농촌에는 농촌진흥회, 식산계 등을 비롯해 각종 소단체가 혼재하고 각 단체에는 각각 존립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민도에 비추어 이를 고찰하면, 오히려 그 폐단이 많고 어떤 단체도 소기의 목적 달성이 어렵습니다. 이에 각종 단체를 모두 국민정신총동원연맹에 통합, 귀일시켜 물심양면으로 본 운동의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민중의 교화

지방의 인민, 특히 농촌의 민중에게는 무학문맹자가 많아 본 운동과 관련된 행사에 형식적으로 참여하지만 그 진정한 정신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장기에 걸친 철저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이를 위한 근본책으로 신속한 국민교육 시설의 보급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임시 시설로서 알기 쉬운 인쇄물의 발행과 순회강연 및 영화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체명징, 시국의 재인식 등에 대한 관념의 주입을 강화함과 동시에 장날, 기타 민중의 집합 장소를 이용하여 시국에 관한 각종 사항을 주지, 선전시켜 철저한 민중교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일본어의 보급

일본어의 보급 및 상용은 국체명징, 내선일체를 촉진하는 근본 문제로서 초등교육기

관의 확충과 더불어 강습회, 야학회, 기타 적당한 임시시설을 강구하여 보급의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일본 성적(聖跡) 순방

모범연맹 이사장 및 모범 애국반장은 내지의 성적을 순방시켜 황국신민으로서의 감격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연맹의 활동 촉진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도시에서의 운동 강화

경성 기타 도시에서의 연맹 활동을 더욱 촉진, 강화하여 시국하에서의 도시 인사의 일상생활이 지방 인민의 모범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시와 농촌은 서로 보조를 맞추어 하나가 되어 본 운동의 실적 계양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전 : 廣原平成 參議 『第21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0년〉

12) 참의 김경진(金慶鎭)

1. 운동의 실황

(1) 연맹 결성 상황

우리 경상남도에서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전 조선에 앞서 1938년 4월 19일 이미 농산어촌진흥운동의 부락진흥회로 하여금 국민정신총동원 부락연맹으로서의 사명을 갖게 하고 각 부락 오가작통으로 하여금 국민정신총동원연맹 애국반으로서 농촌진흥에 힘쓰는 동시에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분투하도록 했습니다. 통제 훈련의 방법으로 부, 군, 경찰, 토목사방, 기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성단봉사작업단을 조직하였습니다. 이것이 본 도에서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조직화의 발단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계속하여 각 부·군연맹, 읍·면연맹, 정·리·동연맹과 부락연맹 및 각종 연맹의 조직과 이들 여러 연맹을 통솔하는 도연맹을 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조직체제의 정비에 노력한 결과, 최근에는 총연맹 결성 수가 8,122개를 넘었고, 애국반 결성 수는 102,472개, 반원은 470,472명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강화, 확충에 대해 부윤·군수·경찰서장의 회의는 물론 도회에서의 강조, 부군연맹 사무담당자 협의회, 일본 정신

발양주간 행사 실시, 강연, 강담회, 좌담회, 성단 봉사작업 및 경남연맹대회 등 모든 방책을 통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우리 존엄한 국체에 의거한 진충보국의 정신을 더욱 발전시켜 일상의 업무생활에서 구현, 실천하여 미증유의 난국을 타개하고 국운의 융창을 도모하는 일대 국민운동으로서, 우리 조선에서는 더욱이 내선일체의 완성 및 반도 동포의 급속한 황국신민화를 목표로 일본의 운동과 호응하여 강력하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전면적으로 실효를 거두기에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운동이 지금 첫걸음을 내딛는 것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 방면 모두 착착 실적을 거두고 있음에 기쁨을 금할 수 없습니다.

(2) 정신적 방면의 영향

일반인이 어느 농촌에서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매일 아침 동쪽을 향해 곧은 자세로 궁성을 요배하고 서투른 일본어로 황국신민의 서사를 낭독하는 것을 목격하고서, 실로 멋진 감격을 느꼈습니다. 또 일중전쟁 이후 그들이 군국에 바친 수많은 충후미담을 듣고서, 국민의 지성이 흘러넘침에 경탄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광경을 3, 4년 전에는 목격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 말해도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3) 가뭄피해 극복

작년 가뭄피해는 조선에서 실로 100년만의 대한발로 그 피해 범위의 광대함과 정도의 심각함은 다시 떠들 필요가 없지만, 특히 본 도는 재작년 1938년 이후 계속된 피해에도 불구하고 230만 도민은 자력갱생의 의기를 더욱 씩씩하게 내보이며 절대적으로 당국을 신뢰하고 각자의 직무에 충실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전시하 황국신민으로서의 결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폐품 회수

부산연맹은 결성 이후 매월 15일을 폐품회수일로 정하여 각 정(町)연맹에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폐품매각대금을 부산군사후원연맹에 헌금하고 있습니다. 1938년 7월 개시 이후 1939년 12월까지 매매대금은 12,762원 33전이라는 거액에 달했습니다. 이는 매월 평균 700여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정연맹 이하 애국반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은 초량정 북부 제1연맹 제9조 제1애국반의 활동입니다. 이 반

원 후지이 히사코(藤井久子) 씨는 반 내의 모든 주부를 불러 모아 회수일에 스스로 솔선하여 도시락을 지참하고 짐수레를 끌며 광범한 지역을 돌면서 호별 방문을 통해 모집하는 헌신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1938년 7월부터 1939년 11월까지 실적이 1,000여 원에 달해 부산연맹 가운데 제1위의 성적을 올려 올해 2월 11일 기원절에 조선연맹으로부터 폐품 회수 우수단체로서 표창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5) 경남 김해군의 운동 실적

① 연맹 결성 상황과 실행사항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이상한 경향이 있지만, 본 운동선상에서 다소라도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 나의 거주지인 경남 김해군의 전면적 운동방법과 실행 실적을 개략적으로 서술하겠습니다. 군내 부락연맹 결성 수는 364개소이며, 그 대책으로 우선 지도 진영의 강화 철저 문제인 13만 군민에게 실천 구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도진의 강화에 전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 결과 군 직원 35명, 명예경찰서원 28명, 읍·면직원 152명, 학교직원 67명, 금융조합·산업조합·어업조합·수리조합 직원 38명, 지방유지 18명, 합계 376명의 진사(陣士)를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산간벽촌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맹 부락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담당하여 매월 22일 지도자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음달의 실천요목 및 지도사항을 결정해 매월 1일 애국일을 중심으로 전날 밤은 각 부락이 일제히 부락 월례회를 개최합니다. 앞에 기재한 담당자는 총동원상 필히 출장하고(이를 일제지도라 부른다) 각종 지도사항의 통달과 취지의 설명, 시국 인식의 철저, 저축의 정리, 실행요목의 협의 결의 등 부락민과 무릎을 맞대고 마음을 열어 친화와 자연 속에서 서로 도우며 물심양면에 걸쳐 자각 분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② 일제지도와 각 호 지도

일제지도를 매월 1회 반드시 실시한 결과 부락민과 지도자는 서로 화목한 가운데 한 마음 한몸이 되어 연맹실천사항의 체득과 실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날은 각 호 지도로서 각 호별 방문을 실시하여 실행, 실천을 조사하고 지도편달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③ 학교연맹

학교연맹에서는 아동을 통해 각 가정에 본 운동정신의 고취, 침투를 도모함은 물론 제 2의 황민교육의 근본정신도 실로 그 연원이 모두 여기에서 나오므로 근린 통학아동으로

하여금 애국반을 조직시키고 이들 아동애국반은 매일 아침 등교 시 반기를 선두로 정연하게 대오를 짜서 등교하고 있습니다.

④ 유립연맹

유립연맹을 결성하여 각 문파에 애국반을 조직시켜 향당의 선구자로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⑤ 대마봉재와 신찬전(神饌田)

신공 대마봉재는 지난해와 올해 3,464체의 반문(頒文)을 받들어 각 관공직자를 비롯해 각 애국반장, 각종 단체연맹에게는 물론 각 부락연맹 집회소에 봉재하고 매일 아침 부락연맹 애국반원으로 하여금 참배시킵니다. 이 세신공을 경배하고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天照大神)의 신덕(神德)을 숭배하는 경신숭조 관념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또 각 부락에 정전(淨田, 신찬전) 10평을 공동 경작시켜 그 수확물을 대마전(大麻殿)에 바쳐 부락의 가을제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를 거듭할수록 모든 가정에 보급할 것입니다. 또 현재에도 민중의 자발적 결의와 계도에 노력하여 관민일체 일사불란한 결속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⑥ 궁성요배와 국기 게양

애국일 행사, 각종 의식, 기타 집회가 있을 때마다 궁성요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애국반을 중심으로 깨끗하고 조용한 장소에 적토(赤土)를 쌓고 궁성요배소를 만들어 사이렌, 경종, 징, 나팔 등을 신호로 모든 가족이 궁성요배를 실시하여 황실존숭의 진심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국기 게양은 각 호가 빠짐없이 국기를 소지하고 보관보자기로 소중히 다룹니다. 각 호마다 게양기둥을 설치하여(부락연맹에는 모두 게양대를 설치) 축제일, 기타 단기(團旗) 게양일에 게양합니다.

⑦ 황국신민의 서사

황국신민의 서사 낭독은 모든 산간벽촌의 남녀노소가 암송 또는 추송에 숙달하여 매일 아침 궁성요배 때 모든 가족이 낭송하고 있습니다. 처음과는 달리 지금은 의미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⑧ 저축 장려와 절미

저축 장려의 경우 비행저축의 성적은 매년 여름과 가을 2회의 수확기에는 매호 평균

보리 2두, 벼 2두를 표준으로(생활정도에 따라 2두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2두 이하는 허용하지 않는다) 부락으로 하여금 현곡(現穀)의 비황저축을 일제히 실시하게 하고 각 지도기관이 전력을 기울여 노력한 결과, 오늘날은 수확기에 이르면 자발적으로 실시하여 이미 본 시설은 습성화되었다. 저축 잔고는 보리 1,464석, 벼 947석, 현금 16,309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국민저축장려운동과 서로 일치되어 더욱 강화 보급되고 있습니다. 또 부인 성미(誠米) 저축, 생미(省米)·절미(節米)·시미(匙米)·반미(飯米) 저축의 성적은 순수한 농촌 부녀자들이 매번 취사 시에 쌀 한 숟가락, 보리 한 숟가락을 절약하여 매일 월례회에 지참하여 이를 경매하여 금융조합, 우편저금 또는 간이생명보험에 적립하는 등 근검저축의 미풍을 여실히 발휘하여 저축 잔고는 현금 10,957원, 쌀 38석, 보리 50석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락에 따라서는 각 개인의 저축 잔고 성적을 표시하여 다액저축심의 배양을 장려하는 등 전시하 저축운동의 취지와 합치하여 총후부인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 보국저축은 작년의 할당액 62만 원에 대해 84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⑨ 폐품 회수

폐품 회수는 각 기관과 일치 협력하여 회수하고 매각금은 실로 6,800여 원에 달했습니다.

⑩ 가뭄피해 공사의 연맹 청부

김해군은 작년 가뭄피해와 소금피해를 받아 그 대책공사를 시공하였습니다. 총공사비 40만 원을 전부 군내 각 부락연맹에 청부를 맡겨 시행한 결과, 그 성적이 양호하여 타 지역으로부터 한 명의 인부도 고용하지 않고 구조물의 공사비를 제외한 약 25만 원의 금액이 연맹원 애국반원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아마 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사례일 것입니다.

이상 총괄하면 3, 4년 전까지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실적으로 모두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힘이자 결과의 훌륭한 입증일 것입니다.

2. 향후의 강화철저책

향후의 강화철저방책은 가볍게 단정할 수 없지만 걱정스런 의견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구의 개혁 강화

개혁방법은 본부에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관한 국(局)·부(部)·과(課)를 설치하고 마

찬가지로 도·부·군·읍·면에 과 혹은 계를 설치하여 연맹기관을 벗어나 관청 독자적 입장에서 연맹기관을 지도, 감독하고, 일반 민중의 운동을 조장해야 합니다. 즉 도·부·군·읍·면연맹은 관청과 분리하여 연맹기관의 감독관이 아닌 관민합동으로 조직하여 최고지도자로는 가장 열의에 불타는 민간의 유력자를 선정하고(무급), 이사장과 상무이사로는 유급으로 가장 열의 있으며 식견과 경험이 탁월한 자를 등용하고, 평이사·평의원·참여·고문 등으로는 감독관이 아닌 관민유력자를 선정하고, 도지사·부윤·군수·읍·면장 등으로는 연맹의 지도 감독의 지위에 두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상시국을 맞이하여 설령 연맹기구가 없더라도 관청 당국에서는 일반 국민에게 정신총동원운동을 당연히 실시해야 합니다. 연맹기관은 관청과는 별도로 별동대로서 조직되어 관청과 연맹이 서로 민중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 효과가 클 것입니다.

② 현재 민간에서 소위 유력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연맹은 관청의 부속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자발적 성의가 결여되어 연맹 독자적인 건전한 민중적 정신운동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③ 따라서 본 운동은 민간의 유식유력자가 실행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2) 은진(殷賑)산업 관계자의 자숙자계 철저

도시연맹원 가운데 소위 유력자, 특히 은진산업 관계자의 생활 행동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 방면에 미치는 영향도 심대한 것을 고려해 반성과 주의를 촉구하여 자숙자계의 마음을 환기시켜야 합니다.

(3) 정동 실천망의 정비 확장

도시에서는 지역적으로만이 아니라 직능적 단체별 연맹을 결성하여 실천망을 정비, 확장해야 합니다.

(4) 일반 민중의 지도방법

지도자는 일반 민중에게 절대로 틈을 두지 말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쉬지 말고 호소하며 일분일초를 불태우는 열의로 지도해야 합니다.

(5) 중심인물의 양성

연맹원 가운데 중견인물, 지도인물을 양성해야 합니다.

(6) 일제지도 및 호별지도의 보급 철저

김해군에서의 운동방법인 일제지도, 호별지도가 가장 효과적이고 총동원이라는 표리 일체의 운동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보급해야 합니다.

(하략)

〈출전 : 金慶鎭 參議 『第21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0년〉

13) 참의 김영진(金英鎭)

1. 향후의 강화철저책

(1) 유교단체의 갱생과 정동연맹

지금 실현되고 있는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기초 공작을 하는 것은 유교단체의 갱생과 연맹입니다. 즉 경성에서는 경학원을 중심으로 석존의 거행과 명륜학원의 개설, 지방에서는 향교 또는 서원을 중심으로 결합한 유교단체의 갱생과 연맹이 그것입니다.

(2) 육군특별지원병제도의 확장

국방주의로 나아가 황국의 병역에 지원하여 군무에 충성을 다하는 실황은 정말로 열성적이고 지원병역자가 성황을 이루는 것은 이미 수년간 체험했습니다. 지원병역제를 바꾸어 후일 의무병역제도로 변경하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음이 명백합니다.

(3) 종교단체의 정리와 신사 창설

종래 존재해온 미신 저망한 종교유사단체는 거의 사라지고 이를 대신하여 신사에 참배하고 불각에 예배하는 관습이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만약 앞으로 이전부터 있었던 우량한 사당의 보존 및 제전의 거행을 장려하고, 시골에서 촌사(村社)·향사(鄕社)를 모시는 촌민의 경신심(敬神心)을 함양한다면 국민정신에 커다란 교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산업조합제도의 실시

종래 실시되던 각지의 '계' 제도는 최근 현저하게 발달하여 관행이용의 방도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각 읍과 동에서 신용제도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지에 산업조합제도를 실시하여 생산과 저축의 미풍을 보급하는 것이 가장 급무입니다. 다만 산업조합제도를 발달시키고 우량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과거 일본에서의 마에다 마사나(前田正名) 선생과 같은 인물을 중심에 두고 그 지도를 기다리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규약을 준수하고 법규에 구속된 형식만의 발달은 오히려 국민 진흥에 해가 됩니다.

(5) 지방 중견 청년의 활동 촉진

청년회와 청년단은 근래 사회의 중층(中層)에 존재하고, 그 중층 세력의 발휘는 촌읍의 흥산과 치안에도 많은 효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근면절약의 모범이 되어 정신운동의 중견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청년의 왕성한 원기로 인해 자칫하면 궁지가 겹치레에 기울고 화평을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6) 신사에 조선관계 신령의 합사

신사참배는 근래 빈번해졌습니다. 만약 신사를 건립할 때 조선관계의 신령을 합사하면 일한일가의 환원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일본 정신의 연원을 찾는 연고가 될 것입니다. 스사노오노미코토(素戔鳴尊)과 오쿠니누시노미코토(大國主命)를 합사, 봉안하는 것이 한 예일 것입니다. 가령 춘천 소호무리(우두리)에서 스사노오노미코토를 봉사하고 경주 석씨의 능에 이소타케노미코토(五十猛命)를 합사한 것도 한 예일 수 있습니다. 요컨대 정신운동의 진의는 이를 통합하여 일본 정신을 강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합치하는 조선 전래의 양속양풍을 가능한 한 많이 가미하여 내선일여(內鮮一如)의 실적을 올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략)

〈출전 : 金英鎭 參議 『第21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0년〉

14) 참의 장헌근(張間憲四郎, 하리마 겐지로)

1. 운동의 실황

신동아 건설을 목표로 성전은 이미 4년째를 맞이하여 그 효과를 착착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전에 국가 총동원법이 발동된 이래 관민일치의 열렬한 노력이 지속되어 지금은 사회 제반에 걸쳐 그 총의(總意)가 인식되어 그 실행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지의 정동운동의 실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조직을 완료하여 대강의 태세는 어느 정도 정비하였지만, 그 실재는 지역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즉 도시와 농촌을 비교했을 때에는 그 취지의 철저함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지식계급 또는 은진산업관계자 등의 본 운동 실천 상황을 보더라도 철저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이는 필경 그 취지가 아직도 일반 민중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가총력전을 외치는 지금 이러한 현상은 정말로 유감일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성전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믿습니다.

2. 향후의 강화철저책

(1) 연맹운동의 취지 철저

일반 민중의 성전 목적에 대한 인식은 최근 상당히 확실한 정도에 도달했다고 하지만 한층 더 정동운동의 취지를 철저히 하여 본격적 활동에 호응하는 기풍을 작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2) 기구의 확충

정동연맹운동은 우리 제국 부동의 국시인 동양평화를 확보하고 일본 정신을 세계에 양양시키는 실로 중대한 사명을 지닌 기관으로 우리 국민도 이에 호응하고자 내선 일치 단결하여 국가총력전을 통해 성전의 목적을 관철시킬 견고한 각오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의 총동원으로 본 운동정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관민의 연락 협조

지금 각 정동운동은 마치 관청식이라는 느낌입니다. 관민 일체 태세라는 관념이 몹시

박약하여 진정한 친숙함이 결여되었습니다. 즉 민간유력자와의 접촉이 거의 없고 연맹의 참여(參與) 등으로 추천되어도 평소 정동의 사무에 대해 아무런 협의도 없이 완전히 관청 소관의 사무로 전락된 상황입니다. 본 정동운동은 앞으로 본격적 운동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지금 민간유력자를 좀 더 이용하여 민간 여론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민의상달의 길을 열어 국민 각 층이 하나가 되어 정동운동에 매진하여 본 목적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② 읍·면에 경비(經費)와 전속 직원의 배치

정동운동을 제1선에서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다수의 애국반원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읍·면연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맹에는 아무런 인원이 배치되지 않고 예산의 경우도 연간 불과 20원 내외에 불과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현명한 읍·면의 직원일지라도 이것으로는 도저히 활동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읍·면 사무 자체에 여러 복잡한 사무가 많아 그 처리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본 정동운동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1선에서 활동하는 읍·면연맹에 정동운동의 전속직원을 여러 명 배치함은 물론, 연액 300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중심인물 양성용 지도강사의 파견

각 도·부·군·연맹이 관할하의 애국반장과 기타 중견인물을 훈련시키고 싶지만, 이에 필요한 우수한 지도자를 확보하는 일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조선연맹 본부에 이들의 지도를 담당할 강사를 두고 상시 각지의 강습회에 파견하여 순회 지도를 담당시켜야 합니다.

(3) 내선일체의 완성과 내지 이적(移籍) 촉진

정동연맹의 강령에는 황국 정신의 현양 이외에 8항목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동운동의 중추를 이루는 것은 내선일체의 완성입니다. 내선일체의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당국의 영단에 의한 내선공학의 쇄신, 특별지원병제도, 민사령의 개정을 통한 창씨제도 실시 등 착착 내선환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반도 민중은 모두 이러한 크나큰 황은에 마음 깊이 감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내선일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발 더 나아가 반도인도 일본에 호적을 둘 수 있는 길을 강구함으로써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천 수백 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할 것입니다. 유사 이전은 그렇다 하더라도

유사 이후 귀화한 많은 반도인은 그 정신과 형식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내선일체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 누가 반도인의 후예인지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선 민중은 견고히 결합되었습니다. 귀화 반도인에게 당시의 위정자가 취한 수단방법, 즉 귀화인에게 모든 방법으로 우대하고 특전을 부여하여 각기 생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제정하여 실시한 결과로 진정한 내선일체가 되어 이른바 내선 민중은 동조동근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생생한 실적을 고려하여 반도인에게도 내지에 호적을 둘 수 있는 길을 강구하는 것이 내선일체의 완성을 빠르게 하는 요체라 믿습니다. 물론 반도인 어떤 자이든 곧바로 호적을 일본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을 요망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자, 즉 10년 혹은 20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여 시민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훌륭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하여 용인하는 것이 내선일체의 완성을 촉진하는 아주 중요한 방책이라는 것이 저희의 진지한 요망입니다.

(4) 주부의 각성 촉진

국가 총동원법의 발동에 따라 전시경제정책이 실시되어 일반 민중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의 시국에 대응하는 총후국민의 각오는 불요불굴 인고결핍을 참아내는 국민의 정신력을 함양하는 한편, 공사 생활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생활을 쇄신, 개선하고 물자의 소비 절약과 저축을 적극 강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시국은 아직 요원하여 그 진전에 따라 물자통제가 필연적으로 강화될 추세에 있습니다. 국민은 일치단결하여 간소생활의 실천 혹은 생활수준의 하향을 철저히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도인의 일반 가정주부 중에는 아직 경제통제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자가 많을 뿐 아니라, 사면 때문에 생활상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일반 가정의 의표인 중류 이상의 가정이 더욱 심각한 듯합니다. 가정생활의 근간인 주부를 각성시켜 물자 통제의 취지를 충분히 체득시키고 분발을 촉구하는 것이 정동운동의 수행에서 긴요한 방책입니다.

(5) 애국반장의 활동 촉진

정동기구가 완성되어 상하 각 연맹의 밀접한 연락에 의해 본 운동의 철저에 노력 중입니다. 본 운동정신의 철저를 기하고 민중의 일상생활에 구체화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제1선에서 활동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는 애국반장의 활동 여하에 따라 그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각 반장을 정동의 선두로 내세워 실천에 매진하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독려가 필요합니다.

① 현재 애국반장 중에는 반원의 지도에 대한 충분한 초력(招力)을 지닌 자가 적습니다. 반장을 교양, 훈련할 목적으로 연간 수회 불러 모아 정신적 방면에 중점을 둔 강습회를 개최하여 지도의 요점을 체득시켜야 합니다.

② 현임 반장의 활동이 충분하지 않고 타동적 지도에 의해 미봉적으로 움직이는 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본 운동정신에 위배되므로 정동 본래의 취지를 파악하여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하여 바꿔야 합니다.

③ 애국반장은 추진대원과 항상 밀접한 연락, 협조를 이루어 반원의 지도에 노력해야 합니다.

④ 상급연맹으로부터의 각종 장려사항이나 기타 통지 등에 관한 문서를 그 반원에게 회람시킬 뿐,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100장의 문서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반원 중에 문자를 모르는 자가 대부분인 현황을 고려하여 각 반장으로 하여금 실천의 모범을 보이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폐품 회수의 강화

전시경제통제가 긴박한 현재 정세를 고려하고 향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폐품을 적극 재이용해야 합니다. 또 생산력 확충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 확보함과 동시에 가급적 수입을 제한하여 대외지불의 절감을 도모하는 것이 비상시국의 급무입니다. 하지만 일반에게 이러한 취지가 결여되어 있고 폐품 회수에 의한 물자환원의 시설 또한 충분하지 못합니다. 도회지는 제쳐두고 기타 각 지방에서는 다양한 많은 폐품이 여기저기에 방치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면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고물매수인 혹은 조선 옛장수 등에 의해 약간 폐품을 회수하고 있지만, 운임과 중간이윤을 고려하면 극히 저렴한 가격에 매매되므로 일반 민중은 그 회수를 게을리 하고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원인 폐품도 이러한 상태에서 곳곳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일반물자 특히 중요자원인 금속류·섬유질류·고무·피혁류의 남용을 방지함은 물론, 그 폐품 회수에 대해서는 각별히 독려하여 관의 지도 또는 보조에 의한 폐품재생시설을 각지에 급설하여 매입가격을 높여 수집을 독려하는 것이 자원 애호상 중요한 시설입니다.

(7) 학교 아동을 통한 절미운동의 독려

식량대책에서 유일한 사명을 지니는 절미문제는 관계당국과 정동연맹의 활동에 의해

7분도 상용, 대용식 장려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초등학교 아동을 통해 각 가정에 이 운동의 철저를 도모하는 것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소학교에서 아동에 대한 교원의 명령은 아동이 절대복종한다는 큰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 학교 교원을 통해 절미의 철저를 도모하는 것이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철없는 아동의 주의 또는 권유에 의해 그 학부모들이 부덕행위를 각성하고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통례이므로 이를 통해 식량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8) 정동기간지 「총동원」, 「효(曉)」의 내용 간이화

정동운동 방침을 일반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총동원」, 「효」라는 기관지를 발행한 것은 아주 적절합니다. 하지만 본 정동운동 정신은 이론만으로는 실용을 거둘 수 없고, 잡지를 읽고 곧바로 도움이 되는 실제로 활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애국반원의 대다수는 지식 정도가 아주 낮은 반도 민중이므로 그들이 이를 판독하고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내용을 쉽게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등재 재료의 선택도 대중독자를 기준으로 삼도록 특히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전 : 張間憲四郎 參議 『第21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0년〉

15) 참의 최준집(崔準集)

1. 운동의 실황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개시 이후 이미 1년 10개월이 지나 제1기에는 연맹운동 취지의 보급 및 철저와 연맹망의 조직 정비에 노력했고, 제2기에는 주로 지도자 계급의 교양, 훈련 등에 진력하여 농산어촌진흥운동과 표리일체가 되어 목적 달성에 매진한 결과 착착 그 실효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본 운동은 주로 정신적 방면, 즉 만방에 비할 데 없는 국민정신을 양양하고 일역이 한마음이 되어 국난의 극복을 도모하는 운동으로 일조 일석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일중전쟁은 물론 지금의 급박한 국제정세를 바라볼 때 성패 여하는 국책 수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본 운동을 진정으로 반도민 전반으로 침투시켜 내선일체, 황국신민이라는 신념을 견지시켜 흥아의

성업을 받들어 돕고 일시동인의 성은에 보답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향후의 강화철저책

향후 정동운동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연맹조직의 강화, 확충을 도모함과 동시에 연맹원의 수양훈련과 단체훈련에 힘을 기울여 국민 총 친화 총 훈련에 노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맹조직의 강화, 확충

현재 연맹망의 조직은 도시와 농촌을 통해 각 계급을 망라하고 있지만 아직 종적 연계에 비해 횡적 연계가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각 학교의 아동학생을 참가시켜 횡적 연계를 도모하고 있지만 총후국민의 추진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인과 청년의 구체적 운동 참가조직망이 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이들을 본 운동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지 않으면 본 운동의 진정한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급히 이들의 조직망을 결성하여 4자 일체가 되어 총횡의 연락을 강고히 하면서 운동의 신속한 목적 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부인애국반의 결성

부인은 총후의 추진력인 동시에 제2의 국민 양성의 모체입니다. 본 운동 수행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이므로 다음과 같이 부인애국반을 결성시켜 본 운동의 원동력으로 삼고 건전한 제2의 국민 양성에 힘써야 합니다.

－ 조직

총래 애국반 안에 주부로 조직해서 부락연맹에 부속시켜 부인애국반이라 칭하고 애국반장은 반원 중에서 책임자로 총당할 것입니다.

－ 지도목표

부덕(婦德)의 함양

시국의 인식

생활의 쇄신

국어의 보급

저축의 장려

옥외 노동의 장려

색복의 장려
소비 절약과 자원애호
대용식 이행
폐품의 이용 회수

② 청년애국반의 결성

청년의 지기(志氣)는 국가의 성쇠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 운동에 참가시켜 운동의 추진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조직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 조직

부(府)·읍·면에 각 청년연맹을 조직하여 청년 단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단원은 전부 연맹원으로 합니다. 밑으로는 정(町)·동·리별로 애국반을 조직하고 정·동·리 내의 청년단원, 즉 애국반원으로 청년애국단을 조직하여 이사장이 적임자를 반장으로 임명합니다.

- 지도목표

일본 정신의 양양
시국과 청년의 지위 자각
일본어 생활의 이행
무도(武道)의 장려
지원병제도의 철저
근로애호정신의 함양
자원 증강과 생산확충
방공방첩

(2) 연맹원의 수양 훈련

본 운동의 성과는 첫째로 연맹의 조직분자인 연맹원의 활동 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선 개개의 연맹원의 수양 훈련에 노력하여 자각, 향상을 도모하고 일치단결, 생업보국에 매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봉(神棚) 봉재

연맹원의 각 가정에 신봉을 봉재시켜 매일 아침 궁성요배와 국기 게양의 이행과 더불어 일본의 명징, 경신승조, 일본 정신의 양양을 도모할 것.

② 시국의 재인식

시국에 대해 항상 새로운 인식을 견지시켜 사변의 장기화에 따른 민심의 긴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기관지 『충동원』의 언문보급판을 발행하여 각 애국반에 강독시키고 월례회 등을 이용하여 문맹 반원에게는 반장이 이를 설명하는 등 극력 시국에 대처해야 할 인식을 갱신할 것.

③ 내선일체의 촉진

신봉 봉재, 일본어의 보급, 지원병제도의 철저, 씨 제도의 철저와 이행을 도모하고 극력 내선일체를 도모할 것.

④ 근로애호정신의 함양

인적 자원의 부족 완화, 생산확충의 견지에서 총후국민의 근로애호정신의 함양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조기 기상의 이행, 1일 1시간 근로 증가, 부인의 옥외노동, 근로보국대의 강화, 철저와 함께 근로애호정신의 함양에 힘쓸 것.

⑤ 전시생활의 철저

물자 부족 현상을 고려하여 저물가정책에 순응하여 소비 절약, 물자에호, 매점과 암거래를 없애고 국채의 구입, 저축의 장려를 도모하는 등 연맹원에게 전시생활의 철저를 강조하고 견인지구(堅引持久), 시난(時難)극복의 신념을 파악시킬 것.

⑥ 조기회의 장려

시간의 존중과 함께 조기회를 이행하여 인고연마의 정신을 체득시킴과 동시에 근로정신을 배양할 것.

(3) 단체훈련

본 운동의 목적은 물론 연맹원 각자의 자각 향상에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연맹원의 일치단결, 생업보국, 국난극복에 매진하여 흥아의 성업 관철, 즉 국민의 총 훈련에 있기 때문에 연맹원 각자의 수련과 단체적 훈련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방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월례회 이행

월례회는 연맹원의 친목을 도모하고 연맹의 취지 및 실행사항 등을 주지시키는 협의

기관이기 때문에 각 애국반마다 이를 이행하여 필히 반원 전부를 출석시킬 것.

② 국기계양대의 설치

각 애국반마다 국기계양대를 설치하여 국기 계양을 장려하고 매일 아침 국기계양대 밑에서 반원 전부가 참여하여 궁성요배를 거행할 것.

③ 근로보국대의 강화

종래 근로보국대는 각 애국반마다 개조되어 근로봉사작업은 물론 일상적인 일도 매일 아침 조기 기상의 이행 등을 통해 대원의 단체적 훈련을 도모하고 능률 증진, 즉 생산확충, 근로애호정신의 함양에 힘쓸 것.

④ 애국일의 이행

매일 애국일은 애국반별로 반장의 통제하에 국기계양, 근로봉사작업, 좌담회 등 단체적 훈련하에서 실시할 것.

⑤ 공동작업장의 설치

부락연맹마다(도시를 제외하고)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연맹원의 친목과 능률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부업 등에 대해 공동 작업을 실시할 것.

⑥ 공동경작지의 설정

일치단결심과 자신의 애국반에 애착심을 환기시키고 단체적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각 애국반마다 공동경작지를 설정할 것.

(하략)

〈출전 : 崔準集 參議 『第21回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40년〉

16) 참의 김신석(金信錫)

사변 발생 이후 총독부는 국민정신총동원 운동망을 구축하여 유형·무형으로 총력을 기울여 강화, 확충하고 사변 처리의 중점으로 삼았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 총동원법의 중요한 조항도 점차 광범위하게 발동하여 실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진정한 교화와 실

천을 일체화한 일대 국민운동이 되었습니다. 강령 및 실천요목을 보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일본 정신의 발양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 각 사항은 모두 민중 각자의 실천에 의해서만 구현될 것입니다. 이의 강화 철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필경 민중에게 시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파악하게 만들어 각자의 자각과 노력을 통해 의식주 전반에 걸친 일상생활에 일대 쇄신을 단행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참고로 종래 운동의 실황 및 장래 대책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운동의 실황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성패는 결국 연맹의 최기저단위인 애국반의 활동 여하에 달려 있음을 감안하여 전라남도연맹에서는 애국반의 활동 촉진에 중점을 두고 각 애국반장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애국반상회를 장려하여 애국반의 활동에 관해 협의하고, 실천사항의 실행 등은 물론이거니와 행정 제반의 운영과 병행시켜 모든 관의 시책은 완급 대소의 여하를 불문하고 되도록 상회(常會)를 통해 반원에게 주지시키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발한 기능 발휘에 노력한 결과 활동은 점점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각 방면에 걸쳐 본 운동의 효과가 착착 나타나고 있습니다. 활동상황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애국일 행사의 이행

애국일 행사요항을 전 도(道)가 일제히 요항에 의거해 실시하고 있는데 애국일 행사의 강화 철저는 경찰당국과 연계하여 실시합니다. 경찰 단속 영업자 가운데 유곽, 요릿집, 카페, 음식점 등의 일제휴업에 의해 총후 자숙의 정신이 날로 양양되고 있습니다.

애국일 행사요항

- ① 애국일 행사는 부(府)·읍·면연맹 혹은 지방의 실정에 따라 정·동·리·부락연맹이 주체가 되어 실시할 것.
- ② 부·읍·면연맹의 주체로 실시할 경우에는 신사(神社)·신사(神祠)의 경내에서, 정·동·리·부락연맹의 주체로 실시할 경우에는 국기계양대 밑이나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실시할 것.
- ③ 각 호에서 1명은 필히 참가하여 그 달에 실천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고 전 월 시행한 실적을 보고할 것.

- ④ 당일은 특히 전장 장병의 노고에 감사하며 자숙자계하고 이를 일상생활에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 항목을 각 지방의 실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필히 실시할 것.
- 특히 긴장하며 일할 것.
 - 의복은 특히 검소하게 입을 것.
 - 식사는 반찬 하나로 하고 대용식, 혼식을 장려할 것.
 - 금주, 금연을 장려할 것.
 - 유흥은 일절 하지 말 것.
 - 이 날 절약한 돈은 필히 저금할 것.

(2) 육군특별지원병 응모에 대한 활동

전라남도연맹에서는 작년 8월 이후 육군특별지원병의 응모에 관한 적극적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평소 연맹과 애국반에서 각기 구역 내의 건전한 신체를 겸비한 청년의 물색에 유의하고 나아가 이러한 청년의 육성, 배출에도 노력하여 지원병의 모집이 있을 때마다 정·동, 리·부락연맹으로부터 항상 1명 이상 적격자를 추천하도록 해왔습니다. 1940년도 지원병 모집에는 도연맹 이사를 각지에 파견하여 지원병제도에 관한 취지의 보급 철저에 노력하고 읍·면·정·리·부락연맹은 물론 애국반에 이르기까지 응모 권유에 관한 강연회,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극력 모집에 노력한 결과, 부형들의 이해와 청년층의 분발로 지원자 10,535명, 적격자 4,852명에 이르렀습니다.

(3) 가뭄피해 극복 활동

가뭄피해 발생 이후 거도일치로 각 연맹과 애국반원이 전부 나서서 극복 돌파에 매진하고 가뭄피해 극복 강조주간을 설정, 실시하여 각종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또 극복에 대한 연맹원의 신념을 더욱 견고히 만들고 각종 대책사업의 실시에 따라 이재민의 취로 잉여금의 저축에 만전을 기한 결과 소기의 목적이 대개 달성되어 춘궁기 돌파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4) 절미운동 활동

한해대책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국민식량의 확보에 유감이 없도록 도연맹은 연맹 결성 이후 연맹운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연맹원에게 철저한 실천을 종용해온 생활개선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해 생활쇄신, 그 가운데에서도 절미절곡을 강화하고 그